

2021 11 Vol. 377  
<http://cafe.daum.net/ocdskr>

#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 기억



언젠가 설렘으로 만나  
함께 지낸 오래고 긴 날들  
나는 정말 부족했고  
모자라고 미숙했다는 것을 잘 안다

어느 시간의 길 모퉁이에서  
다시 만나 서먹했을 때  
내가 소중한다고 괜찮은 사람이라며  
좋은 말만을 전해 주는 그 기억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자비 그리고 용서  
가없는 영혼 껴안는 뜨거운 사랑이다.

## CONTENTS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기억	29	공동체 이야기 / 울산 아가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울산 공동체 이야기
03	차례	32	순례기 /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6)
04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연설문	37	회원의 글 / 김순상(베로니카) 아름다운 거리두기 · 바라보기
08	총회 후기 / 김형신(이나시오)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알현하고...	40	회원의 글 / 박계용(도미니카) 학림 가는 길
10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58)	42	침묵의 성녀 / 편집부 영광의 찬미(Laudem Gloriam)
14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1)	44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2) 2022년 1월 영적나눔
18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9)	46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박지현(요셉피나) 저기요, 통역해주세요!
22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김석영(요셉) 수사 성 안드레아에게	49	비둘기
24	선교 / 서창규(알로이시오) 신부 나의 이름은	52	그림단상
26	성소 / 성소 위원회 가을 모기		표지그림
28	옹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마음기도를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Laudem Gloriam(영광의 찬미) (윤정순 예수의 글라라)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77호 (2021. 11.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문

- 가르멜 수도회 총회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전 세계 4000여명의 가르멜 수도회원들을 대표하여 여러 지역에서 총회를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또한 저의 인사를 모든 가르멜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도로써 사도직을 수행하는 맨발 가르멜 수녀들과 가르멜 영성을 따르고 있는 가르멜 가족 모두에게도 전합니다. 신임 총장의 인사에 감사드리고, 직무를 마치고 떠나는 전임 총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총회를 매우 의미 있는 세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묵시 2,7 참조) 둘째, 시대의 표징을 분별하라.(마태 16,3 참조) 셋째, 땅 끝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되어라.(사도 1,8 참조)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학교에 속한 제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면서도 하느님의 시간들이기에 항상 아름다운 이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주님을 거스르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듣음' 안에서 역사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표들에 대해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증거자로서 말로써 특히 삶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복음 선포의 식별과 들음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수많은 질문에 직면하고, 안전이 붕괴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성녀 데레사의 자녀로서 데레사적 카리스마의 영속적인 요소에 대한 충실성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위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 - 그리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 거짓된 안전에서 오는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되돌아가

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또한 여러분들의 수도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측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원천에 대한 열망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유익합니다.

때때로 누군가는 축성 생활의 미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불운의 예언자는 이 미래가 짧고 축성 생활은 고갈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교회 자체에 대한 반박을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축성 생활은 교회,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 그리고 교회의 복음적 순수함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축성 생활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일부이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축성 생활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생존에 대해 걱정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멀어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재의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충만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주님 사랑의 신비에 잠긴 채, 현실에 충실함과 동시에 하느님의 지평에 열려져 자유롭게 되는 것을 다룹니다. 가르멜은 관상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의 많은 성인, 성녀들과 함께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충실한 가르멜의 삶은 어디에서나 이해하지 못할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의 목마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갈증은 심연으로부터의 하느님께 대한 깊은 갈증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가르멜의 삶은 심리주의들(psychologism), 영성주의들(spiritualism), 혹은 세속적인 정신을 숨기고 있는 거짓된 현재화(false novelties)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리주의들, 영성주의들, 세속적인 새로운 것, 즉 세속적인 정신의 유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인 영적 세속성(spiritual worldliness)을 조심하십시오. 앙리 드 뤼박(Henri de Lubac) 신부의 『교회에 대한 성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 마지막 네 페이지를 읽어 보십시오 -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 나는 여전히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었습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영적 세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미묘합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합니다. 그것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본문은 베네딕도회의 영적 스승을 인용하는데, 드 뤼박 신부는 그 본문을 요약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악들 가운데 최악이며, (오히려) 내연 관계에 있는 교황들의 시대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나는 또한 일전에 글라렛 수도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도 이것을 말했습니다. (“영적 세속성은 여러분을 내면으로부터 변질시키기 때문에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적 세속성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한 앙리 드 뤼박 신부의 『교회에 대한 성찰』을 읽었을 때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역자 주) 교황청 기관지 ‘옵세르바토레 로마노’ (L'osservatore Romano)는 이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글은 나의 글이 아니라 뤼박 신부님의 글입니다. 그리고 ‘내연 관계에 있는 사제들보다 더 나쁜’이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진실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옵세르바토레 로마노’가 잘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속성은 끔찍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그것에 대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돌아온 악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

람에게서 나가면, 쉼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싫증이 난다', '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마태 12, 43-45 참조, 역자 주) 그런데 이 일곱 악한 영은 인간의 영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둑처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 벨을 누르고 인사를 하고 조금씩 들어가고, 조금씩 들어가면서 전진하고, 당신들은 그들이 당신의 집을 점유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세속성입니다. 조금씩 들어가고, 역시 기도에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드 뤼박 신부의 『교회에 대한 성찰』의 마지막 네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영적 세속성을 조심하십시오.

복음적 충실함은 장소의 안정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함에는 복음의 가치와 자신의 카리스마에 대한 확고한 헌신과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총회를 위한 준비 문서를 읽은 것처럼, 나는 여러분

들이 하느님과의 우정 어린 만남,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적인 삶 그리고 선교를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주님과 우정 어린 만남은 주님과 통교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칙에서 말했듯이) "in obsequio Iesu Christi" (그리스도를 따름)을 기쁨 안에서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 축성된 남녀 수도자들이 장례식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추한 일입니다. 기쁨은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그 기쁨, 즉 평화, 우정의 표현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권고에서 제가 추가한 또 다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나는 유머 감각을 구하는 성 토마스 모어의 기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Gaudete et exsultate)의 어느 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님, 제가 소화를 잘하게 해 주시고, 아울러 소화하기 좋은 음식도 내려 주소서. 저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좋은 성향도 주소서. 저에게 단순한 영혼을 주시어 모든 좋은 것을 잘 간직하고, 악을 보고 쉽게 겁먹지 않으며, 모든 일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도를 찾도록 도와주소서. '나' 에게만 집착하여 생기는 권태, 불평, 한숨, 한탄, 과도한 스트레스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소서. 오 주님, 저에게 좋은 유머 감각을 주소서. 제가 농담을 받아들이고 삶 안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다른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주소서." - 성 토마스 모어의 유머 감각을 구하는 기도, 역자 주)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일상적이면서 평범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겸손한 이

들의 기쁨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우정,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적 삶과 선교가 연결되어져 있기를 권고합니다.

하느님과의 우정은 침묵 속에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숙하게 됩니다. 그것은 날마다 길러지고 지켜져야 하는 불꽃입니다.

이 내면의 불꽃의 열기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삶을 실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액세서리 요소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 “맨발의 형제들”.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여러분들은 홀로 있음과 타인과 함께 있음 사이의 건전한 긴장 속에 있으면서, 개인주의와 세상의 획일화에 대해 반대되는 성령 안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주의와 획일화. 공동체 생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형제적 사랑의 방식’을 권고합니다. 형제적 사랑의 방식은 매일 배워야 하는 예술입니다. 마치 나자렛 성가정과 사도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마리아의 맨발 형제들”이라는 일치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 성 요셉을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요셉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한 분이 그 당시에 다음과 같이 겸손한 기도가 적혀 있는 성 요셉의 작은 이미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를 받아들여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나는 이것을 매일 기도합니다. 성 요셉께서 예수님과 성가정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

어주시기를 청하십시오.

하느님과의 우정 어린 만남과 형제적 사랑의 방식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세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면서 창조성과 결단력 있는 사도적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숙고하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쇄신은 관상적 성소에 대한 충실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결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카리스마들의 사명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즉 관상의 살아있는 물을 세상에 전해 주는 여러분들의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사실 그것은 현실의 도피, 보호된 오아시스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 곧 하느님의 사랑에 마음과 삶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삶을 “나누어 주기” 위한 힘은 오랜 기간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심에서 나왔습니다. 성인들과 성녀들도 그랬습니다. 성인들의 관대함과 사도직에 대한 용기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에 열매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과의 우정, 형제적 삶, 선교, 세 가지 요소의 조화는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택에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목표입니다. 성령-조화를 창조하는 분-께서 이 길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밝히시고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알현하고...

김형신(예수의 이냐시오) 신부/ 관구장



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제 92차 가르멜 수도회 총회에 필립보 네리 신부님과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러 의미 있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6년의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총장님과 부총장님들에 대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본질적인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데레사적 카리스마 선언문'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수도회 회칙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크나큰 선물이 되었던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알현이었습니다. 총회 프로그램에 알현에 대한 일정이 예고 되어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은 아니었지만, 막상 교황님을 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자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제가 로마로 떠나기 전에 어느 재속회원분께 어찌면 이번에 교황님을 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교황님께 한국 재속회원들의 안부 인사를 전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인사도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

억이 났습니다. 2014년 꽃동네에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먼발치에서 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워서 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교황님 알현이 있기 하루 전날 총장 비서 신부님께서, 내일 교황님을 뵈러 갈 것인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교황님을 마스크를 쓴 채 멀리서만

뵈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뵈고 악수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교황님을 직접 뵈고 악수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교황님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은 각자 출발하여 바티칸 광장의 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그룹은 걸어서 간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수사님들은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가르멜 수사님들이 수도복을 입고 거리로 나오자 당연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두 명의 수사님들이 거리를 걷어가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이렇게 수십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광장에 도착하자 수사님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광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외출이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총회 장소인 피정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에 나오니까 저절로 기분이 들떠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삼 오오 모여서 사진을 찍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자 다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가방 검사를 마치고 바티칸 경비병들이 양 옆에 지키고 서있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은 일반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에 관광객들은 호기심과 부러움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저희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였습니다. 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또 다른 조그만 광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을 가로질러 다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으로 된 계단들을 올라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교황님을 곧 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치 어린이처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교황님을 알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언제쯤 교황님이 나오실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았고, 얼마 후 하얀 수단을 입으신 교황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드렸습니다. 짧지 않았던 박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자, 신임 총장님께서 교황님께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끝난 후 바로 교황님께서 저희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환영의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발표 후 드디어 교황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교황님께서서는 각자가 교황님께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드디어 교황님을 가까이서 뵈게 되는 이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교황님께 차례

대로 다가가서 인사와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대부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미리 마음속으로 '저는 한국에서 온 김 이냐시오 수사입니다.' 라고 인사말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라고 덧붙일 말도 준비하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황님 앞에 서자 입이 제대로 안 떨어졌습니다.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교황님을 뵈자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고, 간단한 저에 대한 소개만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교황님께서서는 약간 놀라신 듯 눈을 뜨시고 더욱 반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하셨습니다. 한국을 기억하고 계시는 같아서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모두의 인사가 끝난 후 교황님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교황님께서서는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떠나실 때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큰 박수로 보내드렸습니다. 교황님이 나가시자 누군가가 'Flos Carmeli' 를 불렀습니다. 이미 교황님께서서는 떠나셨지만 저희들은 그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아마도 교황님께서도 복도를 지나시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는 교황님을 위한 저희들의 염려와 교회에 대한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바램대로 가르멜 수도자로서 잘 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님 알현이 끝난 후 저희들은 모두 만족했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피정집으로 돌아왔고, 오후부터 계속 총회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58)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 2. 멕시코에서 남자 맨발 가르멜 (계속)

#### 1) 새로운 스페인인 멕시코를 향한 여정

국왕의 파견 문서를 얻은 초창기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12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선교 그룹을 마련했다. 이 숫자는 사도들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세비야에서 파견을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승선하기 전에,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성령의 크리스토팔(Cristóbal del Espíritu Santo) 부제가 병으로 임종하고 말았다. 결국 11명의 선교사<sup>1)</sup>만 배에 올랐다. 이 그룹의 리더는 천주



멕시코의 제7대 총독이자 가르멜의 후원자인 돈 알바로

모친의 후안(Juan de la Madre de Dios) 신부였다. 이들은 새로운 스페인으로 불리던 멕시코의 제7대 총독이자 비야만리케의 후

1) 11명의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다: 천주 모친의 후안(선교 그룹의 대표), 사도들의 페드로, 성 힐라리오의 페드로, 예수의 이냐시오, 막달레나의 세레자 프란치스코, 예수 마리아의 호세, 예수 마리아의 후안, 예수의 힐라리온, 평수사: 성 일데폰소의 아르세니오, 천주 모친의 가브리엘, 천주 모친의 아나스타시오(참조. Dionisio Victoria, *Los Carmelitas y la Conquista espiritual de México*, o.c., 18).

작인 돈 알바로 만리케 데 수니가(D. Alvaro Manrique de Zúñiga)와 함께 항해했다. 이때 수사들은 그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돈 알바로는 이때부터 수사들에게 큰 호의를 갖고 선교지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선교사 일행은 1585년 9월 27일 베라크루스의 산후안데울루아(San Juan de Ulúa) 항구에 도착했다.

이어서 그들은 베라크루스에서 돈 알바로와 함께 멕시코를 향해 출발했다. 마침내 이들은 같은 해 11월 17일 멕시코에 도착했다. 그들은 여기에 첫 번째 수도원을 설립했다.<sup>2)</sup> 그들의 선교 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장차 하게 될 선교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 아타팔코(Atzacualco) 지역에 정착해야 했다. 당시 이 지역은 통상 산세바스티안(San Sebastián)으로 불렸으며,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선교 수사들은 이 지역의 책임을 맡아 원주민들을 돕는 가운데 선교를 시작했다.

#### 2) 멕시코에 정착하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약 25년을 머물며 활동하는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1605년 이 지역은 아우구스티노회 선교사들의 관할로 넘겨졌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선교 지향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멕시코 회원들의 열정을 결코 꺾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선교 지역에서 삶의 모범

2) 수도원은 1586년 1월 19일 창립됐다.

과 설교 그리고 영적 지도를 통해 많은 신자들의 영적 유익과 구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다. 이렇게 해서 17~18세기에는 멕시코 전역에 다음과 같은 수도원들이 설립되었으며 회원들은 600명에 이르렀다: 멕시코 수도원(1585), 푸에블로데로스안헬레스 수도원(1586), 아틀릭스코 수도원(1589), 바야돌리드 또는 모렐리아 수도원(1593), 과달라하라 수도원(1593), 셀라야 수도원(1597), 산타페 은둔 수도원 또는 레오네스 은둔 수도원(1606), 코요아칸의 산안헬 학교(1613), 케레타로 수도원(1614), 살바티에라 수도원(1644), 타쿠바의 산호아킨 학교(1689), 툴루카 수도원(1698), 오악사카 수도원(1699), 오리사바 수도원(1735), 산루이스포토시 수도원(1738), 테우아칸 수도원(1745), 테난칭고 은둔 수도원(1796, 산타페에서 이전됨).

선교 초창기에 이 지역의 통치를 위해 맨발 가르멜 지도부에서는 2명의 관구장 대리 신부를 파견하기로 예정했다. 십자가의 성 요한과 그라시안 신부가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실제로 파견되지는 못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병으로 인해 선교사 파견이 취소되었고 1592년에 임종했으며, 그라시안 신부는 당시 초창기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모함을 받아 옥고를 치른 후, 우여곡절 끝에 원 가르멜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이들의 제자 그룹에서 관구장 대리로서 계속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멕시코 관구로 파견되어 제1대 관구장을 역임한 인물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직제자인 순교자들의 엘리세오(Eliseo de los Mártires) 신부였다. 그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파견된 관구장들과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선교 업적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심하며 계속해서 선교 지역을 확장해갔다. 그리고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 선교사들을 양성할 양성 수도원을 설립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양성 수도원은 첫 선교사 그룹이 멕시코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설립되었다. 1597년에 멕시코 관구(당시 이 관구는 성 알베르토 관구로 불렸다)에는 82명의 회원들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대략 절반이 그곳에서 착복하고 서원을 발했다.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한 지원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597년에 산세바스티안 수도원에 대신학교를 설립했으며 제1대 학장으로 순교자들의 엘리세오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직제자로 살라망카 대학의 교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멕시코 출신 성소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사제 지망 성소자들은 스페인계 이민자들 출신이었으며, 평수사 성소자들은 메스티소(스페인계와 원주민들의 혼혈아) 출신이었다. 대신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 후 산세바스티안 수도원 옆에는 학생수사들을 위한 기숙사 수도원도 설립되었다. 그 후, 1613년에 이 기숙사 수도원은 코요아칸의 산안헬 수도원으로 이전했다. 멕시코 출신 첫 번째 맨발 가르멜 회원은 천주 모친의 디에고(Diego de la Madre de Dios, Pérez) 신부로, 그는 1587년 2월 2일 서원을 발했다.

초창기 선교사들의 모범적인 수도생활과 선교 활동으로 인해, 그들은 멕시코 사회 전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멕시코의 7대 총독인 돈 알바로는 1586년 2월 23일자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노고를 전하며 그들을 파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국왕은 그의 서신에 대한 답신을 보내 맨발 가르멜 선교사들의 노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 관구는 신대륙에 잘 정착해 성장을 거듭했다. 이 관구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기존의 스페인 관구들과 경쟁할 만큼 성장해 나갔다. 이 관구에는 훌륭한 학자들과 저술가

들, 설교가들과 영성 지도자들이 생겨나 지역 교회와 사회에 많이 기여했으며, 심지어 산미겔의 안드레스 수사라는 유명한 건축가도 있었다. 신대륙의 맨발 가르멜 역사를 정리한 유명한 역사학자인 에스피노사의 안토니오 바스케스 신부는 1613년에 멕시코를 방문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가르멜 산의 복되신 성모 수도회로부터 지극히 신심 깊은 2개의 수도원이 멕시코시티에 세워졌다. 하나는 산세바스티안 수도원으로, 여기에는 80명 이상의 수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원회규를 철저히 준수했다… 그곳에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많은 수사들이 있었으며, 위대한 모범과 덕행으로 인해 이들은 도시 전체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 3) 캘리포니아 지역으로의 진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의 ‘신대륙 식민청’이 맨발 가르멜에 멕시코로의 선교를 허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대륙에 새로운 지역들이 발견됨으로써 그 지역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사들의 파견 요청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신대륙을 개척하던 스페인 사람들은 멕시코 북부의 새로운 지역들을 탐험하며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하게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몬테레이(Monterrey) 백작이 총독으로 오기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탐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세바스티안 비스카이노스(Sebastian Vizcainos)를 리더로 한 새로운 탐험 그룹을 조직해서 파견했다. 이들이 맡은 임무는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고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었다. 결국, 이들은 인근 해안(태평양)의 여러 항구와 포구를 발견하게 된다. 그 지역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끝에 위치한 산루카스 곳에서부터 멘도시노 곳에 이른다. 이들은 이러한 발견을

통해 중국에서 오는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좋은 항구들을 마련해, 항해를 위한 좋은 환경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은 총독이 1599년 9월 27일자로 스페인 국왕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 있다.

이런 일련의 탐험을 추진한 총독은 비록 먼 지역이긴 해도, 캘리포니아 지역을 선교할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런 지향을 갖고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선교를 일임했다. 이에 국왕은 1598년 12월 16일자 문서를 통해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허락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총독 역시 이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멕시코 관구(성 알베르토 관구)의 장상들은 총독의 결정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위해 3명의 수사들을 선교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총독의 명을 받아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탐험에 나선 그룹을 동반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성모 승천의 안드레스 신부, 예수 승천의 안토니오 신부,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이 가운데 앞의 두 신부는 탁월한 천문학 전문가였다. 안토니오 신부는 서기 소임을 맡아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했다. 이들은 1602년 5월 5일 아카폴코 항구를 떠났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난 후, 이들은 1603년 3월 21일 다시 아카폴코 항구로 돌아왔으며, 같은 해 4월 19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맨발 가르멜 수사들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회원인 후니페로 세라 신부가 이 지역에 도착하기 167년 전에 먼저 성녀 데레사의 후예들이 이곳을 거쳐 갔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승천의 안토니오 신부는 당시 스페인 국왕과 식민지 담당 장관에게 남해의 해변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편지로 보낸 바 있다. 또한, 안토니오 신부는 죽을 때까지(그는 1636년에 임종했다) 맨

발 가르멜 회원들이 더욱 대담한 선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년간 헌신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지역의 멕시코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선교 활동은 많이 줄어들었다. 안토니오 신부의



첫 번째 은둔 수도원인 레오네스 수도원

업적에 대한 증언은 워싱턴의 주교좌 성당 내의 기념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가운데 하나에 기록되어 있다.

#### 4) 아메리카에서 첫 번째 관상 수도원

산타페 또는 레오네스의 맨발 가르멜 은둔 수도원은 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 생활을 영위하도록 배려된 첫 번째 수도원이다. 수도회의 거룩한 관습 가운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 관구는 은둔 수도원을 하나씩 두는 전통이 있었다. 멕시코 관구 역시 관구 체제를 갖추고 안정됨에 따라 은둔 수도원을 창립하고자 했다. 멕시코 관구 회원들은 이를 위해 그에 적합한 다양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리고 산타페의 여러 산들이 즐비한 곳의 중앙에 적합한 장소를 찾게 된다. 당시 총독은 이 수도원 창립을 위해 그 장소를 맨발 가르멜 회원들에게 기증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창립자인 예수 마리아의 후안 신부를 도와주던 멜코르 데 쿠에야르(Melchor de Cuéllar)라는 은인의 도움으로 수도원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은둔 수도원은 1605년 1월 1일 건축을 시작했으며, 창립 멤버들은 다음과 같

다: 예수 마리아의 후안 신부, 성모 승천의 호세 신부, 산미겔의 안드레스 수사, 예수 승천의 안토니오 수사. 창립된 지 얼마 후에 또 다른 4명의 회원이 수도 공동체에 합류했다. 은둔 수도원의 건축은 1611년에



멕시코 관구의 현재 은둔 수도원인 테난칭고 수도원

끝났으며, 그 후로 이 수도원은 오랫동안 멕시코 관구의 회원들 가운데 관상 생활을 열망하는 회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이 수도원은 '레오네스 국립공원' 지역에 속해 있다. 주변의 도시들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 역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은둔 수도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지 않은 환경을 갖게 되어, 회원들은 은둔 수도원을 좀 더 호젓한 곳으로 이전해야 했다. 이에 멕시코 관구의 회원들은 은둔 수도원을 툴루카에서 30km 떨어진 테난칭고(Tenancingo)로 이전했다. 이 지역은 닉스콩고(Nixcongo) 산의 정상에 있는 여러 장소로 둘러싸여 있다. 스페인의 국왕인 카를로스 4세는 1796년 11월 21일자 국왕 의안서를 통해 이 수도원에 대한 창립을 승인했으며, 회원들은 1797년 3월 23일 이 지역을 정식으로 취득했다. 그리고 1801년부터 은둔 수도원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 수도원 역시 멕시코 정부로 인한 정치적인 부침 속에서 수도회들의 재산 몰수로 인해 빼앗겼다가 1951년에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의해 복구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 (31)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 3. 두 가지 그리스도론적 근거 (계속)

당혹스럽고 장애가 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그리스도론적인 순간은 ‘상급’과 은총이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중개를 배제하는 가운데, 신적인 영역을 오르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비대해진 교만일 것이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적인 노력은 헛될 뿐이다.

십자가 아래 있는 성 요한을 언급한 성경 구절은 사도 요한이나 그밖에 다른 관상적 영혼을 지닌 위대한 성인들에게서 좋은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성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화로운 성 바오로를 보십시오. 성인은 마음 깊이 예수님을 간직하셨기에 입에서 그분의 이름이 그치지 않았습시다. 이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저는 위대한 관상가였던 몇몇 성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시다. 성 프란치스코는 오상 안에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는 아기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보여주셨습시다. 성 베르나르도는 주님의 인성 안에서 기뻐했습시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비롯해 그 밖의 수많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였습시다”(7절).

또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처한 상태라든지 질병이 주님의 수난을 끊임 없이 묵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시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가까이 성체 안에 이

미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성체성사로 우리의 벗이 되시어 마치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서는 사실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6절).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은 영혼이 겸손하게 성자를 중개자로 받들고, 그분을 많이 사랑하며, 또한 당신께서 그를 아주 높은 관상으로 이끄시려 해도,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 자기를 합당치 못한 자로 인정하며, 성 베드로와 함께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루카 5,8) 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십니다… 제가 알아들은 것은 기도의 기초 전체가 겸손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영혼이 기도 중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은 그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11절).

반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두 번째 근거를 들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동안 천사를 본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10절). 즉,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건으로 인해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중개(仲介)는 우리에게 대체 불가하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좋은 벗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며, 인간으로서 약함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그분은 진정 좋은 벗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들면 자기 바로 곁에서 그분을 매우 쉽게 찾아 얻게 됩니다”(10절).

여기서 성녀는 평소처럼 비유에 호소했

다. 특히, 성녀는 여기서 익살꾼처럼 아주 풍부한 표현을 들어 비유를 활용했다. 그에 따르면, 테크닉과 애쓰는 노력만으로 신비의 계단을 오르려는 것은 두꺼비가 독수리처럼 날고자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잔인하다 해도, 성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며 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다: “비록 비상(飛翔)한다는 게 두꺼비보다는 우리 영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해도…”(13절). 성녀는 음악적인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 이는 두꺼비의 비유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 “목청이 곱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주 노래를 하려고 애를 써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주신다면, 미리부터 목청을 돋우어 목소리를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12절).

또한, 성녀는 정원과 이 정원에 물을 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기도하는 이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양수기를 돌리는 작은 당나귀와 같다. 그러나 만일 우물 바닥에 물이 없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더 잘 알아듣고, 앞서 말씀드린 양수기로 물을 길는 작은 당나귀처럼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나귀들은 (눈이 가려져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원사가 온갖 힘을 다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길어 올립니다.”(12절).

#### 4. 예수님의 인성은 무엇이며,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인성’(人性)이란 말은 추상적인 용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녀 데레사는 이를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녀의 펜에서 묻어나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분의 신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즉, 그분의 인성은 다음을 가리킨다:

- 그분의 복음적인 모험을 가리킨다: 그분의 말씀, 감정, 활동, 그분의 수난,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의 몸.
- 그분의 성체적인 현존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님은 성체성사로 우리의 벗이 되시어 마치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서는 사실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6절).
- 기도하는 이 또는 믿는 이 곁에 있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현존을 가리킨다. 즉, 그분은 그들 곁에 계신다. 성녀는 그분을 자기 곁에서 보곤 했으며, 그분에게서 모든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녀는 그분을 우리의 동반자이자 자신의 곁에 있는 지극히 좋은 벗이자 참된 벗이라고 부르곤 했다. 또한, 성녀는 그분이야말로 고통받는 데 있어 가장 앞서가시며 모든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으시는 지극히 탁월한 지휘관이라 부르기도 했다.
- 또한, 성녀는 그분의 ‘인성’과 더불어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주님의 성화나 상분을 늘 눈앞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제 영혼 안에 그분의 모습을 깊이 새겨 지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나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임’(Amado), ‘사랑의 불꽃 전체’(todo un foco de amor)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음과 같이 끝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렇듯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보를 선사하며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끌어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임인지, 그리고 이 얼마나 좋으신 벗인지 모릅니다”(14절, 17절).

## 5. 22장에 대한 메모

성서적인 반론: 성녀 데레사는 그리스도론 주제에 있어서 자신의 적수들의 반론에 민감했다는 점에 대해 이미 주목한 바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요한복음과 연계했다(요한 16,7):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이러한 성경의 반론이 성녀에게 인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이를 말기는 데 있어 한계를 지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로써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성령강림을 알리며 하신 말씀을 끌어댁니다”(1절). 둘째, 성녀는 늦은 시기에 자신의 텍스트를 다시 살펴보면서 성모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각주를 텍스트의 여백에 첨가했다. “제가 보기에, 만일 사도들이 성령강림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듯이, 주님께서 하느님이요 인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결코 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의 모친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셨지만, 이 점을 그분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 각주는 늦은 시기에 추가되었다고 말한 것은, 오래된 필사본들은 이 각주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흥미롭게도 성녀가 『영혼의 성』에서 동일한 주제를 제시할 때에는, 『자서전』의 각주를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다.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물러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요한 16,7)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지만, 이건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이 말씀을 성모님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이 굳세시어서, 당신이 **하느님이시요** 인간이심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아드

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완전무결하였기에, 아드님의 인성은 도리어 도움이 되었습니다”(6궁 7,14).

## 제23장~31장: 성녀의 삶에서 강렬한 신비적인 시기

23장부터 32장은 『자서전』의 세 번째 부분을 구성한다. 성녀는 이 부분에서 10장에서 중단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야기의 차원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다. 즉, 수덕적인 전투의 차원에서 신비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로 포커스를 옮긴 것이다. 그 이전의 점진적인 기도의 상승 단계에서 볼 때 현재의 이야기는 두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네 번째 단계인 합일의 기도(*oración de unión*)에 해당된다.

성녀 데레사의 신비 체험은 그 자체로 역사를 초월하는 특징을 갖지만, 동시에 성녀의 펜 아래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 심지어 극적인 것으로 변화되어 표현된다. 그것은 성녀의 내면에서 풀려나오는 일련의 신비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일련의 외적인 사건들, 특히 성녀의 조언자들의 집요한 반대와 함께 교차하여 드러난다. 그래서 서로 다른 3~4명의 배우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에는 성녀 데레사 그리고 그에게 풍부한 은혜를 선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다른 한편에는 성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사탄들이 있다. 이 이야기의 극적 흥미는 하느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동시에 추정된 악마에게 저항하는 성녀가 하게 된 이중적인 역할에서 온다. 이러한 극적 흥미는 기괴한 손짓과 세라핌 불화살의 은총과 더불어 29장에서 절정에 이른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이 책을 구성하는데 모티브가 된 것은 일련의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9

개의 장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제23장: 첫 번째 신비적 은총이 부여됨, 두려움의 위기, 그리고 반대

제24장: 첫 번째 황홀경, 내적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체험

제25장: 내적인 말씀들은 어떤 것인가, 식별 기준들

제26장: 금서 목록. “나는 네게 살아있는 책을 줄 것이다.”

제27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지

성적 현시

제28장: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그분에 대해 갖게 된 많은 상상적 현시

제29장: 사랑의 성장, 충돌, 반대가 일어남, 불화살의 은총

제30장: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의 확신, 어두운 밤의 돌풍

제31장: 성녀의 어두운 밤이 강렬해짐

(다음 호에 계속)

\* 신간 안내 \*

## 『신학대전』 제27권 (죄의 결과)



저 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

역 자: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출판사: 한국 성 토마스 연구소

구 입: 가톨릭 서원, 바오로 서원, 분도 서원

내 용: 『신학대전』은 성 토마스의 역작이자 2천 년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재룡 신부, 윤주현 신부, 안소근 수녀는 지난 1985년 정의채 몬시뇰에 의해 시작된 『신학대전』 전권(한국어 75권 전집) 번역을 이어받아,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이 되는

2031년에 완역을 목표로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제27권은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에 의해 라틴어 원본에서 직접 번역된 것으로, 『신학대전』 제2부의 1부, 86문부터 89문까지 해당된다. 여기서 성 토마스는 71문부터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마무리했다. 이 부분에 앞서, 성 토마스는 『신학대전』 제25권(71문-80문)에서 죄에 대한 규정, 구분, 주체, 원인 등 죄 일반론을 다뤘으며, 제26권(81문-85문)에서 원죄의 본성, 주체, 원인에 관해 상세히 다룬 바 있다.

이제 성 토마스는 죄에 관한 마지막 고찰로서 제27권(86문-89문)에서 죄의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뤘다: 죄의 흠결(86문), 벌의 죄책(87문), 소죄와 사죄(88문), 소죄 자체(89문). 성 토마스는 이를 통해 죄가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남기는 흔적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소죄와 사죄는 무엇이며 둘 사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뤘다.

‘죄의 흠결’ 문제는 원죄가 아담과 그 후손에게 남긴 치명적 흠결(I-II, q.85), 육화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육체의 결함(III, q.14), 고해성사의 효과(III, q.86)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면, 죄책과 그에 따른 벌의 종류 문제는 종말론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신학대전』 ‘보충부’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소죄, 사죄에 대한 성찰과 구분은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다양한 성찰을 가능케 한다.\*

\* 영성 \*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9)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 데레사가 수도복을 착용하다

1889년 1월에 데레사는 가르멜 수녀원 성당에서 거행되었던 감동적인 (착복) 예식 중에 수도복을 착용했다. 그 청원자(데레사)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 하기 위해 그 당시 관례에 따라 순백의 상당히 멋진 신부 드레스로 단장한 채 봉쇄 밖으로 나왔다.

레오니 역시 사랑하는 신랑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갈망했었는데, 동생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분명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알다시피, 레오니는 질투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데레사로 인해 행복해했다. 하지만 말할 나위도 없이 레오니는 그렇게 장엄한 예식에서 틀림없이 그 이전보다 한층 더 부족함의 무게를 느꼈을 것이다.

마르탱 씨에게 **그날**은 대단한 날이었는데,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봉쇄 문 앞에서 데레사를 기다렸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를 보고서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 데레사가 왔구나, 내 작은 여왕!” 하고 외치면서 그녀에게로 나아갔다. 그는 데레사에게 팔을 내밀었으며, 다른 이들이 깊이 감동 받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함께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날**, 데레사는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새 이름으로 서명했다. “아기예수와 성

### 면의 데레사 수녀”

#### 정신 병원

데레사가 수도복을 착복했던 그날은 마르탱 씨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축하의 날이었다. 한 달 뒤에는 마르탱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크나큰 시련 중의 한 가지가 시작되었다. 병의 새로운 증세로 인해, 마르탱 씨는 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1889년 2월 12일, 그는 강의 보-소뵈르 보호시설, 곧 이웃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부르고 있듯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만 했다. 그러한 사건은 훌륭한 아버지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던 딸들에게 크나큰 슬픔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예리한 지성과 정확한 기억을 통해 크나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다.

2월 19일, 레오니와 셸린은 슬픔에 잠긴 채로 강의 성 빈센트 드뿔 (자비의) 수녀회 수녀님들과 함께 살기 위해 르 뷔소네를 떠났으며, 그 결과 두 사람은 아버지를 매일 찾아볼 수 있었다. 첫 방문을 마치고 나서, 셸린은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보냈다. “레오니 언니와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우리 둘 다 마음이 압도당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으니까.”

셸린의 스무 번째 생일인 4월 28일은 그녀가 사랑하는 언니와 동생 가르멜 수녀들

이 보낸 한 통의 편지와 게렝 집안에서 보낸 다른 한 통의 편지로 말미암아 주목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편지를 써 보낸 이들 모두가 셀린의 슬픔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한 편지들을 통해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다. 셀린은 그들 모두가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레오니 역시 (셀린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여동생에게 작은 브로치와 아름다운 장미 덩굴을 선물했으며, 그렇게 선물 주는 것을 통해 두 자매는 잠깐 동안이나마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옅은 색의 장미 덩굴 꽃들 중에는 다섯 꽃봉오리가 있었는데, 상상력이 풍부한 셀린에게 있어 그 꽃봉오리들은 가시들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섯 명의 자매들을 상징했던 것이다.

수녀원에서 보낸 사랑스러운 편지들은 대체로 셀린을 수신인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레오니를 위해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그러한 짧은 메모들은 종종 장난스러우면서도 이따금 서투르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폴린이 보낸 한 편지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안녕, 내 사랑. 네 곁에서 꾸밈하고 있는 덩치 큰 양에게 입맞춤을 보낸다.” 그 “덩치 큰 양”이 바로 레오니였던 것이다!

아버지로 인한 크나큰 고통 속에 놓여 있었던 세 명의 가르멜 수녀들은, 끊임없이 아버지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 마리는 장문의 편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했다. “잘 지내, 작은 동생들. 편지 써 보내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그 편지들이 유일한 희망이란다.” 며칠 후에, 마리는 셀린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편지 쓰기를 중단하지 말아줘. 우린 너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 3. 르 뷔소네와의 작별

#### 레오니와 셀린이 리지외로 되돌아오다.

레오니와 셀린이 석 달 동안 캉에 머물러 있었을 당시, 보-소비르 보호시설 관리 책임자들은 방문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버렸다. 그래서 외삼촌의 충고대로, 레오니와 셀린은 리지외로 되돌아왔다. 르 뷔소네에서 둘이서만 따로 지내게 되지 않도록, 게렝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게렝 집안은 소유하고 있던 약국과 성 베드로 광장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했다. 1889년 4월 20일, 그들은 리지외의 쇼세 19번가, 지금은 폴 배내스토가에 있는 정원이 딸린 저택을 구입했다. 르 뷔소네에 대한 계약은 188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래서 가구들을 게렝네 저택 창고와 수녀원으로 옮기고자 했다.

1889년 7월에, 레오니와 셀린은 에브뢰 근방 라 뤼스에 있는 아름다운 사유지로 가서 두 주간 머물렀다. 그곳은 게렝 집안이 게렝 부인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곳이었다. 그곳은 사십 헥타르(40만m<sup>2</sup>)의 토지를 포함하는 노르망디 지역의 사유지였다. 한 줄기의 강이 그 사유지를 관통해 흐르고 있었으며, 들판과 숲으로 둘러싸인 진짜 성 한 채가 그 사유지 내에 위치해 있었다.

데레사는 1890년 9월 8일에 서원했다. 레오니와 셀린, 게렝 가족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레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름 지어드렸던, “사랑하는 임금님”은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레오니와 셀린은 며칠 전에 아버지를 방문해서 데레사

의 서원 화관과 십자고상에 대한 축복을 청했었다.

레오니와 셀린의 리지외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외사촌 마리 게렝의 환대를 받았다. 마리 게렝은 레오니보다 일곱 살 어렸으며, 셀린보다는 16개월 어렸다. 그들보다 나이 많은 외사촌인 잔은 1890년 10월 1일에 의사 프란시스 라 넬과 혼인했다.

### 게렝 집안 식구들과의 생활

레오니와 셀린은 그 시기 동안, 특히 19세기 후반 기준에 따르자면, 상당히 많은 여행을 했다. 그들은 게렝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에펠 탑을 공식적으로 개장하는 파리의 1889년 국제 박람회에 갔다. 그 이후에 곧바로 레오니와 셀린은 루르드를 방문했다. 레오니 가족들은 레오니의 허약한 건강상태를 걱정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앓았던 지독한 습진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레오니 가족들은 레오니가 치유되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결국 마르탱 집안의 두 처자는 외삼촌과 외숙모와 더불어 루르드를 찾아갔으며, 도중에 투르와 스페인 북부지방을 방문했다. 또한 셀린은 1890년 10월 17일에 파라이 르 모니알에서 복녀 마가렛 메어리 선종 20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에 레오니와 함께 하기로 했다. 레오니에게 그 행사는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다.

또한 레오니와 셀린은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매주 칸으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했다. 레오니에게는 이런 방문이 이득이었는데, 왜냐하면 근처 방문회 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전임 수련장인 마리 드 살 수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 드

살 수녀는 서른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 공동체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방문하는 와중에 레오니가 수도생활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시도했음에도 성공 못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분명 기뻐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 나름 상상 해볼 수 있겠다.

두 자매가 라 뤼스에 머물고 있을 때, 사교성 없는 레오니는 외삼촌이 마련한 리셉션을 즐기지 못했다. 그렇지만 몸치장은 즐거웠다! 하지만 레오니의 엑센트는 옷차림에 비해 품위가 덜했다. 왜냐하면 레오니는 가장 촌스럽게 혀를 굴려 "r" 발음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러한 모임에서 아주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레오니가 정말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훨씬 더 사교성 있는 셀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지요. 전 라 뤼스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찾았고요, 레오니는 수녀원에서 즐거움을 찾아냈지요!"

### 마르탱 씨가 리지외로 되돌아오다

마르탱 씨는 이제 거의 69세였으며, 그의 두 다리는 마비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은 그가 방황할 위험이 없었다. 그래서 1892년 5월 10일 게렝 씨는 마르탱 씨를 칸에서 리지외로 다시 모시고 왔다. 마르탱 씨는 3년 동안 보호시설(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리지외로 돌아와서 이틀 후에, 그는 가르멜 수녀원 접견실로 모셔졌다. 그것이 바로 세 명의 가르멜 출신 딸 수녀들과 함께 한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마르탱 씨는

떠나면서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려 위쪽을 가리키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라고 말했다.

셀린, 레오니, 마르탱 씨는 게렝네 식구들과 함께 살다가, 7월 1일에 라비 7번가 근처의 작은 저택을 빌려 그곳으로 이사했다. 남편과 부인 사이인 고용인 두 명이 마르탱 식구들을 도왔다. 남편인 데지레가 주로 마르탱 씨를 간호했다. 레오니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심각하게 불구가 되어 버렸다. 곧 그는 거의 말을 못했으며 이따금씩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딸들은 작은 정원 주변으로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다녔으며,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1893년 봄에, 셀린과 외사촌 마리와 더불어 레오니는 잔 라넬과 함께 캥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잔의 남편 프란시스가 바로 그곳에 외과 진찰실을 차렸었다. 잔이 자기 여동생과 사촌들을 방문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캥에서 열린 박람회에 갈 수 있었다. 리지외에 있는 마르탱 씨는 잘 보살핌 받게끔 맡겨졌다.

바로 다음 달에 레오니는 캥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방문회 수녀원에서 있었던 일주일간의 피정 때문이었다. 셀린은 화가 났다. 왜냐하면 레오니가 남은 가족들과 함께 라 뤼스로 떠나는 여행 대신에 이번 피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셀린은 레오니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가 화가 난 것을 표현했으며, 그 편지로 인해 레오니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성미 급한 셀린은 레오니 없이 라 뤼스로 떠나버렸다. 마르탱 씨 또한 드넓은 소유지에서 신선한 공기를 즐기기 위해 그곳으로 떠났는데, 그는 한때 그 장소에서 혼

자서, 혹은 가족과 더불어 공원과 숲의 고요함 속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마리, 폴린, 셀린, 데레사, 외사촌 마리게렝을 포함한 가르멜 수녀 다섯 자매와 방문회의 레오니 수녀

(다음 호에 계속)

\* 성인의 시 \*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시와 해설

## 성 안드레아에게 A San Andres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1. 사랑으로 참는 것이  
이렇듯한 즐거움을 주거든  
그대 뵈올 제 그 기쁨 어떠하리
2. 안드레스는 십자가를 보고도  
저렇듯 기꺼웠거늘  
영원하신 지존(至尊)을 뵈올 제  
우리의 기쁨이 어떠할는지고
3. 오, 참는 가운데에도  
기쁨은 없을 수 없는 것  
그대 뵈올 제 그 기쁨 어떠하리
4. 사랑이 다 크고 나면  
일함이 없이 있을 수 없는 것  
제 님의 사랑 때문에  
센 이는 아니 싸울 수 없는 것
5. 이를 이기고 난 다음이면  
일마다 꺾죽없기를 바라리니  
그대 뵈올 제 그 기쁨 어떠하리
6. 사람마다 죽기가 무서웁거늘  
그대 어이 죽음이 좋다 하는가  
아니다, 나는 살려 가노라  
가장 으뜸가는 행복 속에서
7. 오, 내 천주여! 그대 죽으심으로  
짜 없이 약한 자를 굳세게 하시니  
그대 뵈올 제 그 기쁨 어떠하리
8. 아, 십자가 귀한 나무야  
위엄에 너 차 있구나  
멸시를 받아야 할 네가  
하느님을 신랑으로 모시었으니
9. 너 필만한 공(功)이 없이  
기꺼움 벅차 내게 오노니  
너를 보는 내 기쁨 이를 데 없노라

## 해설

11월 30일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연중시기의 막바지, 또는 대림시기 첫머리에 지내는 사도 성 안드레아의 축일이라 이번 달에는 성녀가 성 안드레아를 생각하며 쓴 시를 소개한다.

성경에는 성 안드레아 사도가 성 베드로의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전해지지만 안드레아 사도가 베드로 사도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안드레아가 베드로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순교할 때 자신은 주님과 똑 같은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고, 안드레아 사도는 형장에서 땅바닥에 눕혀진 십자가로 달려가 X자형으로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 어서 못을 박아 달라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아마도 성녀 데레사가 안드레아 사도에 대한 시를 쓰면서 생각한 십자가는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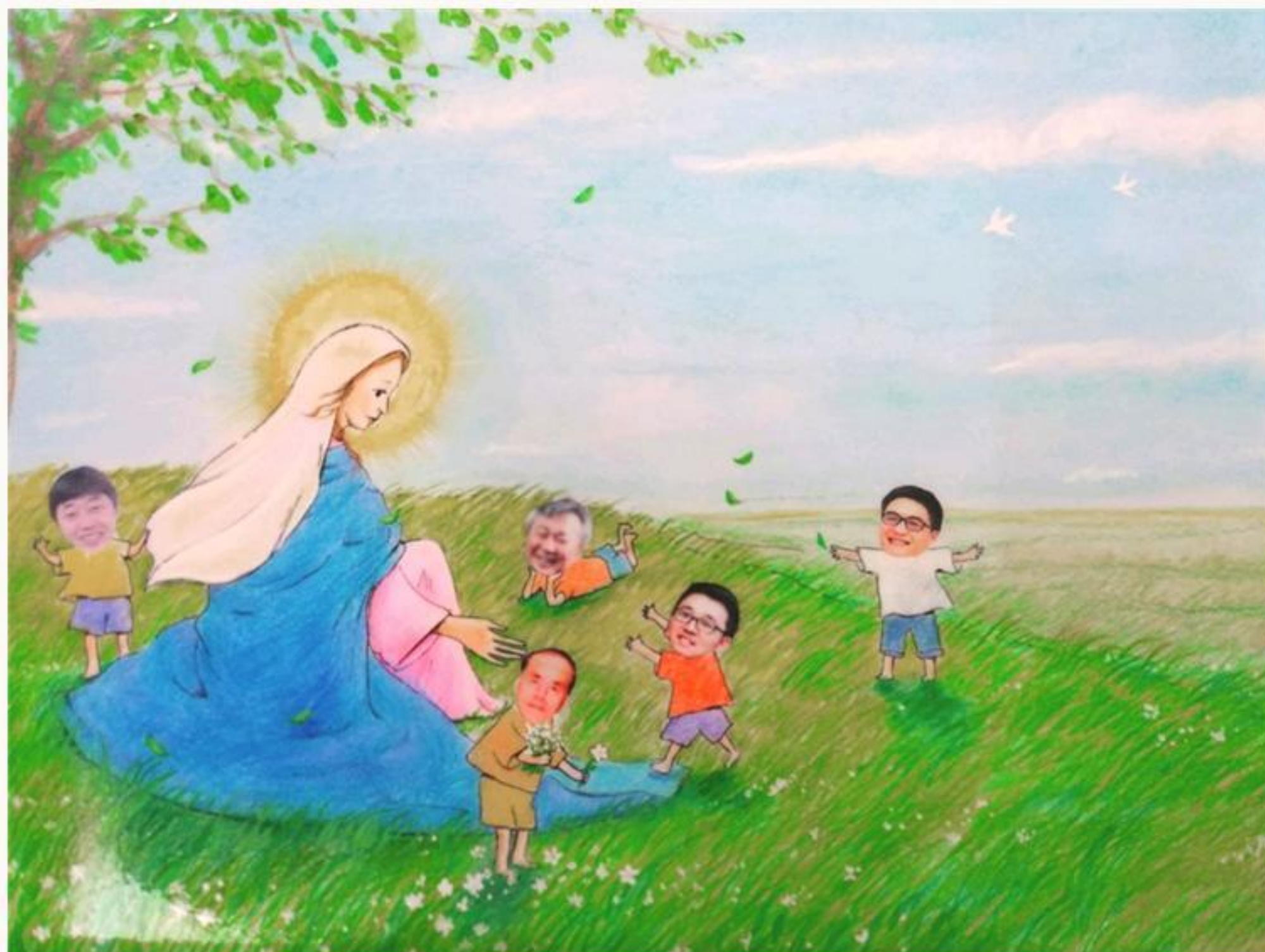
**1절**에서 ‘사랑으로 참는 것이/ 이렇듯한 즐거움을 주거든/ 그대 뵈올 제 그 기쁨 어떠하리’ 라고 시작한 구절에서 성녀는 순교자들이 하느님 또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박해자들의 고문을 기꺼이 참아 견뎌내던 것과 같이 일상에서 오는 고통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달게 받고 견뎌내면서 머지않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뵈올 때의 기쁨을 미리 상상해 본다. **2절**에서는 안드레아 사도가 바닥에 눕혀진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였던 광경을 생각하면서 순교한 후 그분이 천국에서 주님을 뵈올 때의 기쁨을 상상해 본다. **3절**에서 어떠한 고통이나 수고라도 그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참는다면 그 고통 자체가 기쁨이나 위로가 될 수 있는데, 하느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의 기쁨을 미리 생각해 본다. **4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강적을 만나도 물려서지 않고 싸우게 될 거라고 말한다.

**5절**에서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 바쳐 잘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하니 사랑하는 그님을 만나 뵈올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하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6절**에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성 안드레아 당신은 어째서 죽음이 좋다는 듯이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달려가는가 하는 화자(話者)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고(至高)의 행복 속에 살려 가는 것이다’ 하고 안드레아 사도는 대답한다. **7절**에서 성녀는 대화의 상대를 안드레아 성인이 아닌 하느님이신 성자 예수님께로 바꾸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연약하던 자신을 굳세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장차 자신이 죽어서 주님을 뵈게 될 날의 기쁨을 미리 짐작해 본다. **8절**에서 성녀는 대화의 상대를 다시 한 번 더 바꿔 이번에는 십자가를 향해 직접 말한다. 죄인들에 대한 흉측한 처형 도구에 불과하던 십자가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직접 모셔 들여 한 몸이 되었으니 그 위엄과 영광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연인 **9절**에서 성녀는 십자가를 사랑할 만한 공덕이 자신에게는 없지만 마음만은 그것이 반갑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느껴지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른다고 하면서 끝맺는다.\*

\* 선교 \*

## 나의 이름은

서창규(어머니 마리아의 알로이시오) 신부/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대만에 가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그곳에서 생활할 때 수도사제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일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중국어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번거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매일 검은색 클러지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사제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효과는 수업 첫날부터 바로 나타났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검은 클러지

셔츠에 하얀 로만칼라를 본 선생님은 나에게 “신부님인가요?”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그다음부터 나를 이름을 부르는 대신 ‘서신부님’ 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나를 부를 때는 ‘서신부님’ 이라고 불렀다. 물론 중국어로는 ‘徐神父’ 라고만 한다. 아무튼, 속으로 사람들이 나를 사제로 인식하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에 뭔가 뿌듯하고 안정된 느낌이었다.

그다음 학기에는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 선생님 역시 내 옷을 보고서 “신부님

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름 부르는 게 좋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당연히 ‘서신부’ 라고 불러 달라고 얘기했고, 이후 새로 알게 된 학생들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었다.

그렇게 학교에 다닌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업 중에 자신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학생들 각자 본인의 이름을 중국어 발음으로 바꾸면서 선택한 뜻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놀라웠고, 뭔가 순진해 보이기도 했다.

내 차례가 되어 내 이름의 뜻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본래 한자를 많이 사용하기에 대만에 와서 이름을 새로 정한 게 아니라 본래 이 한자를 사용한다고 알려주면서 그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수업이 끝난 후,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부터 계속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 하나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신부, 너 이름이 ‘신부’ 아니었어?”

순간, 그동안의 내 지향과 나름 진지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며 어떤 허무함과 함께 헛웃음이 피식 새어 나왔다. 그리고 애써 당혹감을 숨기며 ‘신부’ 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1년 이상을 나와 함께 중국어를 배우며 지금까지 내 이름을 ‘신부’ 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럼 아마도 내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도 그저 옷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을까?

수도원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신부’ 라고 알고 계속 불러주었다는 게 한편으로 참 영광스러웠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를 넘어 그 사람에게 존재성을 부여하고, 인

격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단순히 호칭으로써 ‘신부’ 를 원했던 것이지만, 그 친구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 존재 자체를 ‘신부’ 라 불러주었고, 결과적으로 수도사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내 지향이 더 잘 들어졌구나 싶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를 또 한 번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어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다.

사제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 하나를 더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제서품을 통해 존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매일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기쁘게 살아가면서, 중국에서 이루어가실 일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수도자로, 사제로 살아가고 싶다.\*

\* 성소 \*



가르멜로 74-56길

가을 모기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이제는 완전한 가을이다. 아직은 낮 시간이 좀 덥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 제법 쌀쌀하다. 그런데 천고마비의 이 아름다운 계절을 조금씩 음미해가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하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다. 바로 가을 모기이다! 자연의 결실을 풍요롭게 담아내는 가을이라는 계절 탓인 걸까? 올 가을은 정말 모기 풍년이다. 내가 살고 있는 수도원이 산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요즈음 화장실 안에서 기본 열 마리 이상은 잡아야 안심하고 볼 일을 볼 수가 있을 정도이다. 심지어 외부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주방 창고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비치는 아침만 되면 수십 마리의 모기떼가 붙어 있곤 한다.

‘아침마다 창문 밖 세상을 그리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른 전기 모기채를 가지고 와서는 그 많은 모기떼를 하나도 남김없이 박멸하곤 했다. 그렇게 엄청난 살생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자연친화적인 도구를 사용했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모기와 투쟁(?)을 하면서 모기라는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 자연스레 돌아보게 된다. 과연 모기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 왜 모기를 죽여야만 하는 걸까?? 여태껏 내가 모기를 상대해온 경우를 돌아보자면... 모기는 참 귀찮고 짜증나게 하고 때때로 화나게 만드는 존재이다. 특히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중이거나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모기가 발쪽이나 손이 닿지 않는 등 쪽을 물고 유유히 사라져버릴 때면 엄청 짜증이 난다. 그럴 땐 가려움 때문에 물린 부분을 긁으면서... 으레 모기한테 으름장을 놓곤 한다. “어휴, 이게 비겁하게. 좀만 기다려. 너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기어코 응징을 하고 만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모기에 대한 살생의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귀찮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이다. 사실 모기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피를 섭취해야 했던 것일 텐데... 그에 비해 내가 내세운 살생의 이유는 너무나도 하찮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뽀족뽀족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모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모기처럼 귀찮고 성가시고 때로는 짜증을 넘어서서 화까지 나에게 만드는 일들이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한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 깊이 돌아본 적이 있었던가? 귀찮음, 부담스러움을 넘어서서 그런 일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

울여본 적이 있었나?? 모기에 대해 그저 성가시다는 하찮은 이유로 쉽게 살생을 하면서도 정작 모기 입장에서의 생명유지라는 근본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바로 맞닥뜨려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정작 인생 도처에서 마주하는 모기처럼 성가신 일들은 되도록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칠까 봐, 혹은 감당하기 벅찰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인 걸까?? 마음 같아서는 모기 같은 그런 방해꾼이 한 마리도 없는 피곤하지 않은 삶, 그저 편안하기만 한 삶을 살고 싶지만, 진짜 현실에는 언제나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모기들이 있기 마련이다. 실제 모기이든지 삶의 모기이든지 간에, 모든 모기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해결해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비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상의 산물이 그 이면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서는 그렇게 모기마냥 짜증을 유발하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짜증과 두려움이라는 가림막을 뛰어넘어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성소문의 : 010 2140 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옹달샘 \*

## 마음기도를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원

마음기도는 기도의 스승이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권장하신 기도입니다.

“마음기도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하고, 자주 여러 번, 단둘이서, 우정을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8, 5)

성녀께서는 당신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가까이 모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것이 성녀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자 4, 7 ; 9, 6 참조) 성녀께서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순수 영(靈)이나 천사가 아니므로, 순수 영이신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22장 참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 6)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 14, 9)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 10, 30)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짝(동반자)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완덕 26, 1참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앞에 가까이 모시려고 노력하십시오. 만일 잘 안되면 자신을 강요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성녀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자신을 강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매일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가지고 마음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십사처를 돌면서 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가 아니고, 마음기도 자세로, 묵상보다는 예수님과 성모님 현존을 체험하고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도, 어떤 지향을 두는 데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모님을 만나는 현존수업을 결들인 현존체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성모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간격이 없는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서는, 훨씬 더 외롭고 쓸쓸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감실 안에 계시면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우리 일에만 바쁘고, 당신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르멜 성녀에게, “나는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나에게서 단 15분 동안만 눈을 떼지 말아다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마리아 성녀에게) 하고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것 외에 더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구송기도라도 잘 드리기만 하면 마음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완덕 24-26장 참조) 기도를 드릴 때, 즉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을 드릴 때 먼저,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며 드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서로 통하고, 눈이 맞은 상태로 드립니다. (완덕 22, 1참조)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감각적인 환시로가 아니라, 비록 눈으로는 뵈지 못하지만, 지금 여기 참으로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으면, 그것이 곧 하느님 현존체험인 것입니다.\*

10월호 옹달샘(7쪽)의 '자신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으로, '노리고 있었습니까'를 '노리고 있습니다'로 정정합니다.

## 가지산 자락에 뿌리내린 울산 공동체

울산 아기에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저희 울산 공동체는 2009년 12월 19일 1시 언양 살티 공소에서 이석재 비안네 지도 신부님과 울산 거주 회원들이 창립총회를 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공동체 세 곳에 분산되어 있던 울산 회원이 모여 최춘자 율리아 자매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여 울산 공동체가 창립되었던 것입니다.

매월 둘째 주일 앞 토요일에 월모임을 하는데 여섯 개 구역으로 구성된 공동체회원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 회관은 공기 좋고 풍경이 아름다운 가지산 자락에 터를 잡았습니다. 울산 회관의 봄은 썩을 캐기에도 얼마나 좋은지요~ 봄이면 회관 마당 풀들 제초작업도 할 겸 깨끗한 썩 캐러 봄나들이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주변의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모여드는 여름

풍경이 있으며, 또한 회관 마당 한켠에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아름드리 감나무가 한그루 있습니다. 그 감나무에는 가을이면 작은 꽃등처럼 파아란 가을하늘을 수놓는 주홍색 감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요즈음은 구하기 힘든 땡감인데 흥시가 되면 단맛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그 감을 따러 오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다음에 오실 분, 그 다음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가을을 맛볼 정도만큼한 소쿠리 정도씩만 따가신답니다.

그리고 감 따러 다녀가시는 분들은 꼭 회관 마당의 풀들을 말끔하게 어느만큼씩이라도 제초작업을 하시고 가십니다.

울산의 회원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게 마음들을 보태는 곳입니다.

겨울을 맞는 회관은 가지산에 내려앉은 백설로 눈 덮인 수목화 같은 풍경

가운데 놓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때마다 다채롭게 달라지는 자연을 품은 회관이지만 기도의 장소로써 회관 바로 가까이 언양 살터 공소와 김영제 베드로 순교자 묘역이 있어서 신앙의 자리를 연결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인근에 석남사라는 여승들이 계시는 고찰이 있어서 회관 오는 길은 좋은 곳, 여행을 하듯 다닐 수 있다는 별도의 정서적 누림도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듯 다닐 수 있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위치한 울산 회관이 세워지기까지 선배님들의 노력과 사랑과 희생 그리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감수한 참사회와 건축 위원회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창립은 2009년 12월에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 당시 20명 남짓한 회원들은 울산 공동체의 창립을 염두에 두고 창립을 한다면 창립 이후 회관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창립이 되기도 전부터 회관을 지을 것을 염두에 두게 된 계기는 울산 지역 회원으로 계시던 조명숙 마리안나 회원이 1997년에 대구로 이사를 하며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 마리안나 회원이 “울산 공동체도 언젠가 창립을 하게 될텐데 그때 보태세요.” 하며 약간의 회사금을 내놓았답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1998년부터 회관 건립을 위해 20여명의 울산 회원들은 땅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뜻을 같이하여 매달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이 얼마간 모였을 때부터 부지 마련을 위해 땅을 여러 곳에 물색하러 다니다가 2002년 현재의 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땅 구입 후 그 땅에 고추며 취나물, 감자, 옥수수 등을 경작하며 돌을 골라내고 풀을 매고 키우고 팔아서 기금 마련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추, 취나물, 감자, 옥수수 등 작물들을 외부에 내다 판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키우고, 회원들이 팔고, 회원들이 사 먹었던 것입니다.



이건 루도비카 선배님

그런 고단함을 솔선수범 감당했던 지금은 선종하신 이건 루도비카 선배님(그때 당시에도 신부님들께선 ‘할매’라고 다정히 부르셨음)이 계셨는데 이건 루도비카 회원님의 진두지휘에 전 회원이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움직였던 것은 가르멜 성모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간다는 가르멜 재속회원으로서의 사랑과 기쁨이 선배들의 의견과 모범을 후배들도 사랑과 순종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랜 시간 건축 준비위원들의 준비 논의가 있는 후 2012년 7월부터 건축 위원장에 최명옥 베로니카 회원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회관 건축에 매진하여 2013년 3월 21일 90여 평 규모로 회관이 완공되어 2013년 5월 월모임부터 울산 회관에서 월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관 부지 구입을 위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장장 1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랑과 열정에서 행하여진 회원들의

희생과 수고들이 그 얼마였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총 부지 750평의 구입비용과 회관 건축 비용 수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간도 기꺼이 봉헌하였으며 건축 기금 봉헌도 1인당 천만 원에 가까운 현금 부담도 모두 기쁘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과정에 하느님의 마련하심과 가르멜 성모님의 보살핌과 회원들의 기꺼이 내어놓음으로 지어진 울산 회관!

울산 공동체 회원들은 저마다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고 반지도 팔아 보태고 그렇게 지어진 우리 집 울산 회관!

한 가지 지나칠만한 사실이 있군요.

울산 회관은 밀양 수녀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대축일 행사며 기도가 필요할 때 회원들이 자주 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울산 공동체 창립 후 첫 야외 월모임을 밀양 수도원에서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7년 11월 데레사 말가리다 수녀님 선종시에는 전 회원이 3일 동안 장례예식을 돕기 위해 조를 나눠서 교대해가며 연도와 조문객 식사 등을 위

한 음식 준비와 조문객 안내, 뒷설거지 등을 하였습니다. 그해 따라 때 이른 맹추위 속에서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회관을 지을 당시만 해도 회관 부지가 있던 곳은 울산 시내 중심에서 뚝 떨어진 매우 한적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몇 년 전 울산 KTX역이 회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울산의 발전을 도모하는 서울산의 중심에서 가까워 타 지역 가르멜 재속 회원님들이 오시기에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월모임과 연피정에 오시는 신부님마다 “집 잘 지었다.”, “위치가 참으로 좋다.” 하십니다

이제 울산 회원들은 한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 든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창립과 12년의 세월 속 선배들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의 나무뿌리와 밑동이 되어 아래서 받쳐주고 위로 위로 양분을 보내주어 새 줄기가 뻗어가게 하고, 가르멜의 꽃과 새잎으로 피어나 재속 가르멜 영성의 보금자리로 큰 고목이 되길 꿈꾸며 함께 기도합니다.\*



울산회관 축복식

\* 순례기 \*

## 18일간의 숨바꼭질(6)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브레슬라우/브로츠와프 거리

미사를 마치고 나온 성녀의 고향 브레슬라우 거리.

현지 가이드 형제님은 영세 받은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신자가 아닌 상태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순례자들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인 하느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가톨릭 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 사연들은 모두 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극적,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당시 높은 건물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독일군의 명령으로 폴란드 대부분의 도시는 50% 이상이 파괴되었고 이곳 브레슬라우는 1945년 초부터 독일군이 요새로 만들어 소련에 대항했던 장소다. 이곳 역시 소련과의 공방전으로 건물의 80프로 이상이 무너졌다. 지금의 도시 풍경은, 전후 고증을 통해 예전 모습으로 재현해 낸 모습이라고 한다. 고증을 통한 도시 재건의 감탄할만한 사례로 꼽힌다고 하니,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 그 모든 과정은 평화를 염원하는 또 다른 기도는 아니었을까?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나온 세례자 요한 브레슬라우 성당의

두 개의 높은 첨탑도 파괴되었던 것을 재건한 상태라고 한다. 때마침 길가로 도심에 있는 긴 붉은 벽돌 벽에 2차 대전 당시 파괴된 거리 사진이 붙여져 있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으로 흑백 사진 속에 있다.

벽에 전시된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몇몇 회원들이 건물 외벽 아래로 시선을 떨군 채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우연히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난쟁이 청동상을 길가에 세우고 각각 ‘승리’, ‘자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 크라스날레 krasnale 가 어느새 반공산주의 운동으로, 폴란드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400여 개 정도가 이 도시 구석구석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난쟁이 청동상을 찾아다니는 여행자를 위한 지도도 있지요”



1945년 당시 브레슬라우 성 요한 성당(두개의 첨탑이 파괴됨)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는 듯이 가이드 형제님이 이곳이 웃으면서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난쟁이 청동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

우리가 흥미롭고 신기한 마음으로 에워싸고 있는 이 난쟁이상은 1475년 브로츠와프 최초의 인쇄업자를 기리는 난쟁이 동상이다.

이곳 외에도 소방관, 굴뚝 청소부, 여행자, 연주하는 난쟁이, 숲에서 온 비범한 난쟁이 등 저마다의 청동상은 하나하나 깊은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은 모두 청동 난쟁이 상을 두고 차례차례 기념사진을 찍었다. 세부적인 묘사가 뛰어나서인지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지닌 할아버지 인쇄업자에 대한 경의에서인지 다른 곳은 청동 빛인데 반해 그의 거친 손만은 많은 이들이 만지고 지나간 탓에 구리 빛으로 윤이 났다.

폴란드 출신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264대 교황으로 1978년 선출된 이후 폴란드에는 서서히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보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온 이곳이 하느님 마음에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을까? 우리의 폴란드 일정에도 있는 '하느님 자비의 사도' 파우스티나 성



인쇄업자 난쟁이 청동상

녀에게 1931년 발현하신 예수님!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마차가 길 한복판을 지나면서 흘러 놓은 말뚝을 피해 거닐면서 과거, 성당이 많아 성당 섬이라 했다는, 도시 외곽에 속하는 이곳을 지나 브레슬라우 중심가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전통과 자연 풍광이 겸해져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관광 명소인 이 도시 구석구석에 눈길을 주며 걷다보니 어느 새 다리로 이어진다. 오데르 강 지류로 인해 이곳에는 12개의 섬과 백여 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중간에 서서 보니 멀리 우리가 미사를 드린 성당의 초록 첨탑 한 쌍이 날렵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지금은 도심 경관을 한층 운치 있게 만



툼스키 다리에서 멀리 보이는 성 요한 성당

들어 주고 있는 이 ‘오데르 강’은 폴란드와 독일 국경을 흐르는 강이다. 폴란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줄기가 브레슬라우를 통과해서 체코로 흘러 내려간다. 이 강은 2차 대전 동부전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거점 지역의 경계선이였다. 나치의 완전한 패배를 지켜본 역사적인 강인 것이다.

2차 대전 후 독일과 폴란드 국경으로 경계를 삼은 강이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 오데르 나이세선이다.

1742년 평화 조약으로 프로이센 령이 되어 독일에 속했던 이곳 브레슬라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레시아 지역이 2차 대전 후 폴란드 땅으로 편입된 면적이 남한 크기만 하다고 하니 독일이 쉽게 승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실향민만도 천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 유래 없는 이주가 이루어진 것이다. 20여 년이 지난 1970년, 독일과 폴란드 외교 노선 수립 과정에서 국경 승인을, 그리고 다시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독일이 옛 영토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오데르 나이세선은 폴란드와 독일 두 나라의 국경선으로 굳혀졌다. 독일이 영토를 포기하면서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은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 냈다는 데 의미가 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 일 것이다.

소박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꿈같은 하루의 휴식을 보낸 도시가 소리 없이 흐르는 역사의 강물 위에 노을로 지고 있었다. 우리가 서있는 톰스키 다리 난간에는 수많은 열쇠가 걸려있다. 많은 다짐들이 소리 없이 잠겨 있다. 녹이 슨 그대로 다짐을 안고 있다. 그것이 어떤 다짐이든 변하지 말기를, 역사의 강물 위에 잠겨 있는 시간들이 침묵하고 있다.

“열쇠를 잠그고 나면 열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강물에 던진답니다. 하하.”

“정말? 사실이에요?”

노동절이 서서히 저물고 있는 도심의 커다란 광장에서 자유 시간을 가졌다. 도시는 어느새 록페스티벌이 끝나고 크고 작은 공연 팀들이 뒷수습에 들어가는 시간. 광장 주변으로 즐비한 오래된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감흥을 준다.

광장에는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 외에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려 빈틈이 없다.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 낸 풍선들 앞으로 아이들은 비눗방울 놀이에 흠뻑 빠져 소리치고 웃고 달려 다닌다. 파스텔 톤의 건물들, 신기한 모양으로 공중에 떠 있는 풍선들과 아이들이 뿜어내는 비눗방울들이 한데 모여 동화 같은 풍경이다.

광장 한쪽에 있는 콘크리트 의자 위에 기타를 높이 쳐든 난쟁이 악사 청동상이 있어서 곁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이 청동 난쟁이상은 또 어떤 아름다운 그만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이 광장에 살고 있는 것인지.

독일의 브레슬라우에서 폴란드의 브로츠와프가 된 곳을 단지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고향이라는 명목 하나로 찾아와 걸어



톰스키 다리에 걸린 사랑의 자물쇠들

다니면서 가슴 뛰었던 이곳.

이제는 유럽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브레슬라우-브로츠와프.

성녀의 고향인 브레슬라우로 찾아왔다가 떠날 때는 브로츠와프로 새기면서 이 도시에 작별을 고한다.

저녁 여섯 시 숙소로 도착. 신부님의 제안이 우리 일정의 끝을 잡고 있었다.

“오늘 식사 시간을 길게 잡아 여행 시작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부님이 사는 백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속으로 하게 될 말을 되새김하고 앉아 있었다. 자유롭게 자리 잡은 식탁 테이블에서 약간의 긴장과 떨림을 쥐고 각자 일어났다.

**4** 제 3일째 (5월 2일 수요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폴란드 (아우슈비츠, 파우스티나 성녀 자비의 수녀원, 크라코프)

### 아우슈비츠, 단상

어제는 성녀의 탄생지, 오늘은 성녀가 네덜란드 베스테르보르크 수용소에서 강제 이동 화물차에 실려 이틀을 달려온 뒤, 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제 2 수용소 전경

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침하여 떠난 곳.

그 두 곳 사이의 거리는 230km, 버스로 세 시간.

아침 7시. 이른 식사가 끝난 후 3시간을 이동한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도착했다.

### 아우슈비츠

순례 시작과 동시에 많은 묵상거리가 되었던 곳. 아우슈비츠가 순례 일정 중 한 장소로 선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오래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실지로 이곳은 회원 20명 중 19명이 찬성해서 순례 일정 중 한 곳이 되었다.

‘십자가의 길’ 14처를 걷다가 멈춰 선 8처. ‘예수님, 예루살렘 여인들을 꾸중하시다.’ 오래전 ‘십자가의 길’ 8처의 문구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먼발치에서부터 따라 걷고 있었을 예루살렘 여인들을 예수님은 두 번째 넘어지신 후 그 고난의 길에서 마주치신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 (루카 23 ; 26-28)

기력이 쇠하신 예수님께서, 오열하며 당신 가까이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십자가의 길’ 8처에 서서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한 채 30년 넘어 십자가의 길 8처에 아직 서 있었다.

매 맞으시고 끌려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너 자신을 위해 가슴 치며 통곡하라는 말씀이었다.

죽음 사나흘 전만 해도 아직까지도 가르멜의 수도복을 입고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 살육의 현장에서 가스실로 보내지시면서, 비로소 그 토록 아끼던 그 예복을 벗고 죽음의 길로 곧장 가셨을 그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곳을 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위한 대의의 결연한 의지 안에서도 여전히 힘들었을 그 분의 공포와 절망을 이제 내가 숨 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확장되고 또 확장 되어 내게 돌아왔다. 그 곳에서 희생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공포와 전율로 그 현장에 있었을 생각에 이르자 70여 년의 세월로 그 날들을 비껴간 한 사람인 내가 그곳을 쉽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회의가 들었다.

기회가 되니 그 곳에 가겠다는 선택과,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타협이 안되었던 그때의 절박함이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곳에 대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기록으로도 정보가 넘치도록 많은데, 기회가 되니 가보겠다는 나의 쉬운 결정을 유보하고 싶었다.

‘가서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어라’ 가서 네 자신을 되돌아보라. 네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 불러일으킨 지금의 이 상황들. 예수님의 죽음과 아우슈비츠 참상의 공통점, 나아가서 세상 모든 죄악의 원인은 나의 이기심과, 불의에 대한 침묵의 공조다.

지금 내 주변에 무관심한 내가,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인류가 공조한 불의한 현장에 가서 분노하고 한탄

을 한다고 해서, ‘돌 심장’ 인 내 안의 어떤 것이 건드려져 나는 세상 앞에서 진심으로 부끄러워지겠는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피투성이 자신을 향해 슬퍼하고 통곡하는 여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 죽음의 길 위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삼으셨다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그들은 오랫동안 슬퍼하고 애통해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날의 아픔은 무뎌지고 그때의 잔인했던 기억은 한순간의 슬픔으로 떠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지상의 것에 눈이 멀어 내게 충실한 삶을 영위하기에 골몰할 것이다.

하느님이시자 성자이신 당신의 희생은 모든 의미와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가 머리에 재를 엮고 옷깃을 찢고, 자기 자신의 죄에 목 놓아 울기를 원하신다.

되돌아가서 회개하기를, 나와 내 조상과 내 후손들 안에 잠식하는 원죄에서 돌아 나와 회개하기를, 그리하여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당신의 그 원의의 대열에 합류하길 원하신 것이다.

죄악의 현장에 가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악을 저지른 인간 역사의 한 장에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기회를, 그리고 그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리라는 참 좋은 많은 생각들을 뒤로 하고 ‘지금 내가 너에게 부끄러운 이유’ 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고 그날의 그 참상에 못지않은 고통 앞에 서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각성을 하는 것이다.

이미 그곳에 가는가, 가지 않는가에 대한 선택은 의미가 없어진다.\*

\* 회원의 글 \*

## 아름다운 거리두기·바라보기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통통통... 발걸음이 바쁘다. 앞, 뒤 베란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전기 콘센트 등을 모두 확인하고 바쁘게 돌아친다. 우리 집에서 0.2m<sup>3</sup>/1일 정도 사용하는 수도물량이 3~4일간 변기의 누수로 68m<sup>3</sup>의 물을 흘렸으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지혜이다.

코로나로 얼룩졌지만 긴 여름 칙거한 나 자신에 대한 포상으로 며칠간 늦은 여름휴가를 나선다.

이렇게 조심조심 여행을 떠났다. 내 남편은 이산가족으로 1.4후퇴 당시, 9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세 명의 동생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단둘이 손잡고 평양 집을 떠났다. 잠깐 동안만 피해 있으면 될듯하다는 거짓 정보를 참으로 믿고... 집안의 패물을 모조리 쪼그만 배에 두르고 얼음이 콩콩 언 대동강을 떠났다. 만약의 경우 어른보다는 아이가 차라리 안전할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파란만장한 피난살이는 부산 영도다리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시티투어버스로 도착한 그곳은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밭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완전 변한 광장을 돌아보며 70년도 넘은 세월의 변화를 온몸으로 확인했다. 회한에 젖는 9살. 추억의 그리움으로 유라리광장을 함께 걸어 자갈치시장으로 올라갔다.

【유라리광장은 유럽의 유와 아시아의 라(아)그리고 사람, 마을, 모여 즐겨 노는 소리를 뜻하는 리(이)의 조합으로 유럽과 아시아인이 함께 어울려 찾고 즐기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 송도 남부민동에 천막을 치고 야외수업을 하던 피난민시절. 평양어머니가 사주신 고운 스웨터의 왼쪽 가슴에는 커다란 흰 손수건을 접어서 핀으로 꿰고 란도셀(초등학생의 책가방으로 일본식이름)을 메고 등교했다. 그 시절, 지금보다는 위생개념이 부족했기에 누런 콧물을 닦거나 아님 넘어져 상처가 나더라도 (그 시절의 길은 지금처럼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으로 고르고 편편하지 않고 진흙탕 길에 울퉁불퉁 넘어지기가 딱 좋았다.) 닦아내기에는 손수건이 제격일터, 우리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가슴에 손수건 다는 것은 필수였다. 피난 시절 처녀선생님은 유난히 희고 깔끔한 소년이 엄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사는 모양이 무척 안 되어 보이셨는지 엄청 귀여워하셨다 한다. 어린 소년도 선생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던 모양으로 지금도 가끔씩 선생님과 찍은 사진을 들여다본다.

이 시대의 코로나는 온 세계의 인류가 함께 하는 고통이기에 치료약과 마스크 사용, 거리두기 등 연구, 개발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남과 북의 1950년 6월25일의 비극은 70년의 세월을 삼켜 버렸다. 이제는 이산가족만의 고통으로 남은 듯. 평양 시내에 사시던 어린 시절의 우리 외사촌 시누님은 학교 가기 전의 어린 나이에 땡땡땡 전차를 타고 대동강 변 바깥 경치를 보며 '여기쯤에서 내려야 해.'하며 고모님 댁을

찾으셨단다. 요렇게 눈치껏 찾아오는 조카 딸 아가를 그렇게나 반기셨다는 나의 시어머니!!! 이 역사적인 비극은 언제까지 거리 두기, 바라보기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젊은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게 했던 바로 그 번영이 불평등과 사회 불화,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빚고 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문제에 깊이 걱정하고 분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말고 위기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다.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규범으로 삼고, 전 인류를 위한 사회를 설계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BTS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그룹이다. 그룹명 '방탄소년단'에서 방탄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및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어,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가 있다.

방탄복이 충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는 10대, 20대가 겪는 힘든 일과 편견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회변화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변화에 겁 먹기보다는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웰컴 제너레이션**'을 강조하며 세 번씩이나 유엔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목소리를 찾으라고.

**김수환 추기경**님(1922~2009)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포용, 이해, 동화, 자기낮춤이 선행된다.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가득해진다.'

**김영문 브루노 신부**님(가르멜 수도회)께서도 관구장으로 계시던 2007년 새해에 권두언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조물주를 찬양하는 기쁨을 권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시간을 내어 우주 만물, 자연이 베푸는 사계절의 풍성함을 즐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1920년)께서는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비결 세 가지는 '여행, 사랑, 공부'라 하셨습니다. 여행은 긴장과 불안·초조와 근심으로 쉽게 피곤을 느끼는 나에게 영적으로 끈을 늦추어 주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해 준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ogers)**1902~1987)는 인간중심 상담을 기본으로 하여 인지행동치료와 해결중심 상담기법을 논한다. 그는 힐링을 위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결국에는 치유가 된다 한다. 힐링을 무의식의 통찰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는 경험이 증가하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힐링 여행을 경험할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강화되어서 힐링을 통한 치유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여행에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관계에서 삶의 윤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는 아름다운 거리두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공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할 수 없이 급변하는 사회. 하다못해 홈쇼핑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려해도 앱 설치를 하게 되면 작게는 5%에서 10%까지 할인해주고 적립금도 준다. 그러나 쌓아준 적립금까지도 앱 사용자에게만 사용하게 한다. 차라리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는 경우에 할인을 해 준다면 참으로 좋겠건만. 내 뚝뚝한 친구도 앱 설치를 할 줄 몰라서 할인을 못 받고는 사기가 아깝고, 약도 올라서 안 샀다고 하면서 전화통화 중에 손뼉을 마주치고 웃었다. 나처럼 알뜰하고 헛똑똑이 친구가 또 있다는 데에 환호하며.

은행 앱을 못 쓰면 우대금리도 못 받는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용어 자체에 괴리감을 느낀다. 65세 이상의 고령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건만 혼자 사는 고령자를 돌보아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이 고령층의 경우 온라인 가입 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30세대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온라인 가입 등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렇게 소외되지 않으려면 김형석 교수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창시절에도 안 하던 공부를...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1954년 9월

18일, 캐나다 몬트리올출생)는 저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2012)'에서 인류사를 통틀어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음을 밝혔다. 또 하나의 저서 '지금 다시 계몽'을 통해서는 75개의 표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인류의 기대수명·건강·행복·인권 등 모든 면에서 인류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진보를 이렇게 정의한다. "죽음보다 삶이 더 낫고, 병보다 건강이 더 낫고, 궁핍보다 풍요가 더 낫고, 압제보다 자유가 더 낫고, 고통보다 행복이 더 낫고, 미신과 무지보다 지식이 낫다." 전쟁은 줄었고 민주주의는 확대됐다. 북한이라는 예외도 있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인권침해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 가치 조사'에서 응답자 86%는 '행복한 편'이거나 '매우 행복'이라고 답했고 저자는 이 같은 자료를 들어 '인류는 진보했고 더 좋아질 것이다'고 희망으로 예측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외교로 우리의 국운이 갈릴 수 있다 한다. 미, 중, 일의 압박과 줄서기 등에서 얼마만큼 거리두기를 잘하고 바라보기를 잘해야 하는가가 우리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도 단 둘만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의 거리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단답형이 아닌 관계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나 자신과의 거리두기일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 그 안에서 명쾌하게 나를 찾아내야 하는 바라보기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스티븐 핑커 교수의 '인류는 진보했고 더 좋아질 것이다'에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 회원의 글 \*

## 학림 가는 길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야청빛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온다.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고, 토닥토닥 나뭇잎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빗소리 마중하는 처마 밑에 번쩍! 어둠을 가르며 번개와 천둥소리도 반가운 선물이다. 찰나의 섬광, 우르르 천둥이 울기까지 잠잠한 그 적막이 무서웠던 어린 날이 까마득한 전설인 듯 아득하다. 마치 옛그제 일인 양 선연하다. 육신의 발길은 이미 서리 내린 초겨울 길에 들어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겨울마 배우는 아이처럼 뒤뚱이며 걷고 있나 보다. 아마도 거울이 없다면 어찌 세월의 흔적을 알아챌 수 있을지, 내가 누구인지 나만 모를 뿐이다.

비가 오면 순식간에 넘쳐흐르던 황토물에 자취를 감춘 징검다리, 오늘은 송사리 떼 오르내리던 맑은 시내를 건너 산모퉁이 돌아가는 오솔길을 걷는다. 아카시아 꽃향기 하얗게 내리던 날 “누군지... 저 상여는 참으로 쓸쓸하기도 하다” 시던 엄마 치맛자락 잡고 바라보던 냇둑 건너 외로운 길. 해 질 무렵 사촌 누님의 상가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막내 외삼촌의 뜻밖의 방문에 어찌 그럴 수 있냐는 엄마의 애통에 ‘폐병’ 이라서 연락을 삼갔단다. 폐병과 꽃상여가 지나가던 그 길은 어린 내게 죽음에 대한 첫 기억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미루나무가 줄지어 선 시냇가로 이어지는 동네 어귀, 기다림의 설렘이 앞서가는 행복한 길이요 한 생을 마무리하는 이별의

길이기도 했다. 어디론가 타지로 떠나는 날에도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거쳐야 하는 외길. 새색시가 가마 타고 시집오던 길이요 만장을 앞세우고 꽃가마에 누워가는 길이였다. 우물가에 앉아 울컥울컥 선혈을 품어내던 방년의 시절에 의식 없이 실려 왔던 길이기도 했다. 로마 여행을 떠나시기 전 덜컹이는 신작로를 지나 태워다 주신 신부님께 안녕히 다녀오시라는 인사 대신 잘 갔다 오시라고 바보 같은 인사를 드린 곳도 그 길이다. “그래, 너도 잘 지내라.” 하시던 말씀처럼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실 신부님께 영상을 통한 장례미사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화려한 꽃상여 대신 손녀딸들은 미봉지를 접어 소담스러운 꽃송이를 만들고 증손들이 길게 늘인 광목 끈을 어깨에 메고 걸었던 길, 상여소리도 없이 소복 차림의 상제들은 울음을 삼킨 극진한 예로 하얀 꽃상여를 뒤따르던 짙레꽃 향기는 처연한 슬픔이었다. 그 길의 끝자락엔 금강수 흘러 백마강 가는 도중 삼성산 양지바른 유택에 조상들은 깊은 잠에 드셨다.

시골집까지 방문하시어 편찮으신 아버지께 영세를 주신 신부님을 배웅하던 길. “아버지, 이제 하느님 아드님 되셨네요!” “언제는 하느님 아들 아니었냐?” 평생 유림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명답이 때때로 떠오르는 그 날. 갈림길에서 강변

도로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는 물음에 “이리 주욱 가유~” 한결같은 시골 노인들의 답이 지금 생각해도 절로 웃음이 나온다. 집에 가신다고 길을 나서시던 엄마도 그 길을 쪽~ 따라가셨단다. 오늘처럼 비 내리는 저물녘에 어느 사이 사라지신 엄마를 찾아 아버지랑 찾아 나선 길. 머리에 짐을 이고 빗길을 걷는 할머니를 태워다 드리라는 아버지와 늘 남 생각부터 한다고 화가 났다던 언니가 엄마를 무사히 모셔온 길도 그 길이다.

때때로 정신이 없는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미망 속을 헤매는 날엔 낮익은 길에 앉아 기다림을 배운다.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호져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북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 - 김기림의 길 (朝光 1936.3)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주면,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토마 사도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주님은 말씀하셨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시며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믿고 또 믿으라 하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앞서가신 분들을 따라 가르멜 산길을 잘 걸어가기를 염원한다.

고향 집 뒷동산 솔가지에 하얗게 무리지어 노니는 학림 가는 길. 찬물에 외발로 홀로 서 있던 한 마리 학은 누굴 기다릴까? 기억의 곳집에 발자국마다 차곡차곡 쌓인 사랑 이야기는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흘러 거기 다다르리라. 사랑은 함께 걸어온 기억이다. 어느 한날 그대와 내가 만나 남겨 준 사랑, 주고 싶은 것은 사랑의 근원이요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성체와 성혈은 눈물겨운 최애(最愛)의 신비이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며 걸어가는 길은 끝까지 사랑하신 길이다.

아버지 집에 다다를 학림 가는 길, 기억이라는 사랑을 마음에 품어 안고 천상과 지상에서 함께 걸어가리라. 이승의 마지막 발걸음이 끝나는 거기,님은 반겨 주시리니.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침묵의 성녀\*

## 영광의 찬미 (Laudem Gloriae)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편집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적 고독과 침묵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등 말과 정보, 영상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은 오히려 고요히 있는 것을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소음은 자신의 자아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할 기회를 제공하며, 내부에서 솟아나는 무수한 사람과 일에 대한 시끄러운 소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르멜 수도회의 침묵과 고독의 영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필요한 영성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가르멜의 성인들 중 ‘침묵’의 성녀,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영성에 멈추어봅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1880년 프랑스 아보르에서 출생하여 1901년 다종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였고, 1906년 11월 9일 선종한 후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 2016년 10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침묵’을 사랑하였습니다. 성녀의 침묵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신뢰와 내어 맡김, 그리고 영광과 흠숭을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녀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 유명한 기도인 ‘오, 나의 하느님, 흠숭하올 삼위일체시여’를

작성합니다.

“오, 나의 하느님,  
 흠숭하올 삼위일체시여,  
 제 영혼이 마치 이미 영원 속에 있듯이,  
 제가 당신 안에 확고하고 평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잊게 하소서.

그 무엇도 제 평화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변함없는 나의 하느님,  
 매 순간 당신 신비의 오묘함 속으로  
 저를 더욱 이끄소서.”  
 (‘오, 흠숭하올 삼위일체시여’ 중에서)

성녀는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신의 성소를 발견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도록 그리고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분 영광의 찬미’(에페 1,12)가 되도록 우리 일치하기로 해요”(서간 191)

“제 꿈은 ‘그분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성 바오로에게서 읽었습니다. 제 신랑계선 이게 유배 동안 해야 할 제 성소라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선, 그리고 오직 그분의 어루만짐만으로 울릴 수 있기 위해선 그분이 아닌 모든 것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서간 256)

‘찬미’는 소리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침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쇼팽을 좋아하던 성녀의 예술성은 성녀의 영성에 영향을 줍니다. 성녀의 영성 안에는 ‘영광의 찬미’와 ‘침묵’이 하나로 녹아있습니다. 성녀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모든 내면의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하고 조율하여 영혼 깊이 내려가서 침묵에 잠길 때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cpbc 영성특강 ‘가르멜

의 성인들’ 편,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강의 중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성녀는 마지막 성체를 받아 모시고 한마디 해달라는 동료 수녀들의 부탁에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랑만이 남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회고록 252)

임종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성녀는 ‘침묵’으로 ‘그분 영광의 찬미(Laudem Gloriam)’가 됩니다.\*



2022년 1월 구역모임

##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범위: 제31장 해설:

### 하느님 체험 안에서 생활한 물

#### 1. 본 장은 의심스러운 장이다. 왜 그런가?

이제 성녀와 함께 관상기도라는 생활한 물로 나아가 보기로 하자. 31장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옵소서”와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두 개의 청원을 계속 해설하고 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 관상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청원을 들으시며” “그때부터 당신은 그 나라를 이승의 우리에게 주시어서 진정 당신을 찬미하게 하고, 그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며, 또 억조창생이 그리하도록 힘쓰게” (1절)하시려 함이다.

본래 본 장의 제목에는 “고요의 기도”가 언급됐었다. 그러나 그때는 조명주의가 크게 위협하던 시대여서 기도에 있어서 ‘고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31장 전체가 삭제되었다가 1588년 살라망카에서 성녀의 작품 전집에 포함되어 출간되기까지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 2. 양심적으로 쓴 페이지들

성녀는 살아생전에 『완덕의길』 31장을 아주 조심스레 다듬고 또 다듬었다. 사실 31장은 『완덕의길』에서 유일하게 관상을 위해 전체를 다 할애한 장이다. 본 장의 중심 부분은 거둬 기도를 주축으로(26~29장)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성녀는 본 장에서 처음 다루게 될 다음 주제를 선택했다. “고요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성녀는 자신이 개정 작업을 하던 원본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썼다. “간디아의 공

작이셨던 예수회의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위대한 관상가이십니다. 그분은 체험으로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녀는 위대한 하느님의 종인 프란치스코 신부의 권위와 체험을 이 31장에 집어넣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쓰인이 중요한 부분 앞에 있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가르침은 무엇일까?

#### 3. 관상에 대해 말하기로 하자.

##### 고요의 기도란 무엇인가?

성녀에게 있어서 ‘고요의 기도’는 “관상의 시작”이다. 따라서 그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청하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도하는 이는 자신이 “궁궐 안의 임금님 곁에 있고, 이승에서부터 바야흐로 그 임금님이 당신의 나라를 자신에게 주신다” (3절)고 느끼게 된다.

이제 기도 수행자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기도의 신적 대화 상대자인 하느님이 자신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관상적인 고요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성녀가 바탕으로 삼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이었다.

- 첫 번째, 신학적 차원으로서 이는 근본적이며 결정적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과 더불어 우리 기도에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 두 번째, 심리적 차원이다. 관상의 은총은 기도하는 이가 “진실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의 내면, 그의 말, 그의 사랑, 그의 심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변모시킨다.

- 세 번째, 실존적 차원이다. 이는 기도

하는 이에게 공통적이며 당연한 삶의 차원을 의미한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서” (순수 찬미)뿐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 1) 신학적 차원

하느님의 현존과 작용에 대한 체험이 시작된다. 기도하는 이와 그분은 “기척만으로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있다” (3절).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 고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2절). 여기서 인간을 평화 속에 두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기도가 내포한 **절대적인 무상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명한 느낌을 갖게 된다. 즉 “고요”는 기도하는 이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업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두드러지게 초자연적인 것” (10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특별한 은총이자 절대적으로 무상적인 것이며 당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선사되는 순수 선물이다.

### 2) 심리적 차원에서의 고요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 있음을 본다.”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으로 들어가는 은총에 사로잡힌 것은 사랑에 빠진 의지이다. 이 은총과 더불어 우리의 의지, 그리고 의지와 더불어 기도하는 이가 품은 모든 애정은 정복되고 말았다. “샘물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며, 구태여 마시지 않아도 벌써 배부르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3절). “모든 능력들이 평온해집니다” (2절). “육체에서는 지극히 큰 기쁨을, 그리고 영혼에서는 커다란 만족감을 느낍니다” (3절).

### 3) 일상생활의 차원

늘 그랬듯이, 기도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정의 교제” 이

기 때문이다. 이 우정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강력하게 체험하며 이와 함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 집중된 애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의지의 결합은 그 자체로 일치시키는 힘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활동 생활과 관상 생활”은 함께 가게 된다. 즉 사랑과 활동은 공통된 역동적인 접점을 갖게 된다.

### 4.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은 성녀가 관상 초보자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칙들이다.

1) 은총을 “선사하는 분”의 손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의 은총 또는 관상적인 체험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러 용을 쓰지도 말아야 한다.

2) “주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어 영혼을 마치 당신 것처럼 부리시도록 더욱 깊은 고요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7절).

3) 환상과 생각이 의지가 누리는 평화를 나누어 받는 것을 거부한다 해서 불안에 떨지 말아야 한다(8절).

4)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이다.

5)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사랑하는 것이다. 관상가는 “그토록 크신 은혜에 따라 봉사하는 가운데” (12절) 하느님께 응답해야 한다.

6) 고요의 기도는 단지 “관상의 시작”일 뿐이다. 관상과 합일의 기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합일의 기도**에서는 “영혼 전체가 하느님과 합일하게 된다” (10절). 이는 관상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

-가르멜 총서 3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발췌

\* 가르멜 인간극장, 가난한 신부 \*



## 저기요, 통역해주세요!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산티아고 길에서 우리 부부가 매일 했던 몇 가지가 있다. 출발하기 전,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것과 매일 미사 영성체를 봉헌했던 것이다. 나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지만 요셉에겐 낯설면서도 귀찮고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숙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구교 집안의 딸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 젊을 때부터 봉사에 적극적이던 아내 덕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택했던 MB와 꾸르실료 교육, 피정, 맛보기 성경 공부 등을 접한 게 전부였다. 신앙심과 기도의 깊이를 인간적인 잣대로 가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요셉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거나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요세피나랑 결혼하면서 천주교에 입교한 거라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결혼한 지 33년 되었고, 그때 영세했으니 33년 동안 이런 반복적인 대답을 해온 것이다. 나 역시 그럴 때마다 그 얘기에 공감하고 동의하며, 요셉의 신앙을 판단하며 내 신앙을 강요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껴왔다. 그럼에도 가장 첫 자리에 올려놓는 기도 지향은 가장의 신앙적 성장과 영

혼 구원, 두 자녀의 영적생명이었다.

물론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음을 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기본적인 성사생활부터 하나씩 몸에 배이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청했다. 특히나 산티아고에 가기 전까지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요셉의 매일미사 영성체의 은총과 성경 말씀을 읽고 맛 들이는 습관이였다.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의 축복을 오직 아내 때문에 받아들인 신앙이라며 33년 동안 힘주어 말해왔지만 산티아고 길 위에 섰을 땐, 아내의 강요나 누군가의 권유가 아닌,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해야만 하는 의무로 생각했을 테다. 미룰 수 없는 숙제처럼 말이다. 당시엔 그저 감사하게만 생각했는데, 내 지향과 바람을 하느님께서 이뤄주셨다는 것을 요즘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 부부를 초대하시어 성장과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주신 감사와 영광의 시간, 산티아고 길! 종일 걷느라 지쳤을 텐데도 마을에 있는 야고보 성당에 가서 매일 미사를 바치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젖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카미노 25일째, 팔라스 델 레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런 말

을 했다.

“주님을 더 잘 모셔야겠어.”

내심 놀랐다. 33년 동안, “저는 요세피나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며 겸손의 극치를 보이던 요셉에겐 대단한 다짐이었다. 그 이후 나는, 요셉이 주님을 더 잘 모시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가 자신이 선택한 신앙이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으며, 이제는 ‘아내 때문에’가 아닌 하느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시선을 확장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렇다면, 길 위에서 읽은 복음 말씀과 매일미사 영성체의 봉헌이 우리에게 남긴 열매는 무엇일까? 부부가 함께 바치는 9일 기도 전에,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강요로 받아들여서 마지못해 하는 형국이 될까봐 조심조심, 성모님과 소화 데레사 성녀께 도움을 청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문득, 성녀의 이 말씀이 떠올랐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생각하면 상심하기가 쉽지만 간신히 서서 엄마에게 가려고 계단을 오르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린이는 몇 번이고 작은 발을 계단 위에 올려놓아 보지만 그때마다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이 어린이처럼 해보십시오. 모든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완덕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을 들어 올리십시오. 한 계단도 혼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한 의지만을 바라시며, 당신의 노력에 감동하여 당장 팔에 안고 그분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첫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땅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화 데레사와 함께 하는 30일 묵상 중에서)

세례 받은 지 33년이 지났어도 자신의 신앙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아내의 뒤에 숨는 요셉에게 어울리는 말씀이었다. 나 역시, 어린 소화 데레사의 마음으로 첫 걸음의 미숙함을 기억하며, 한 걸음씩 계단을 오르는 순례 길의 연장선에 있음을 성찰했다. 요셉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 1장씩 읽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처음엔 ‘이 마누라가 숙제를 하나 더 얹어 주는 건가?’ 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였지만, 금세 적응이 됐는지 산티아고에서처럼 일상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생각해봤다. “같이 평일미사 갈래요?” 하고 물으면, “내가 무슨 가르멜인이야?” 라고 답했던 요셉. “순교성월인데 가까운 성지순례라도 할까?” 그럼 여지없이, “내가 가르멜인이야?” 라며 둘러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이 되어, 좀 더 노력해주지 않는 요셉이 야속하게 느껴지곤 했다. 그런데 며칠 전, 나의 그런 오해와 선입견, 자기관념적인 생각을 깨부순 사건이 있었다.

지인이 나에게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할 한다면 좀 주소를 보내왔다.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경험하도록 배려한 거고, 또 비용까지 계산해준 것이다.

접속을 하니 교수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아뿔싸! 내 조악한 실력으로는 전문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면서 이걸 내가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건가?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비용까지 감수하며 초대를 한 건데, 나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가 좋다고 나까지 좋은 건 아니었던 거다. ‘그래, 그거였구나.’

내가 요셉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신앙적으로 한 차원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애썼던 마음이 바로 지인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처럼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했고 좋은 것을 받아 먹지도 못했다. 오히려 버겁게 느껴졌다.

“내가 가르멜인이야?” 라고 하며 버거워하던 요셉이 겹쳐 보였다. 33년 동안 “나는 요세피나랑 결혼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이라 잘 몰라요.”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요셉이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아서, 회피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가르멜을 비롯한 내가 경험한 신앙적 지식이나 다양한 기도 방식이 마치 영어처럼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러므로 요셉은 “나는 당신이 하는 신앙적, 영적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알아듣기 쉽게 통역해주세요. 내 수준

에 맞는 번역이 필요해요.” 라는 말로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이다.

‘아, 주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주소서.’

우리 부부의 신앙적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번역기는 뭘까?

그건 바로, 함께 읽는 성경, 복음말씀이다. 말씀은 각자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게, 또는 알아듣는 성향이나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습성에 따라 알고 이해하며 깨달아지는 영역이기에 그렇다. 아울러 각 사람에 맞게 말을 건네시는 최고의 번역기, 성령께 의탁하며,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야겠다. 생각해보니 요셉은, 그때 이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뎠던 거다.

‘주님을 더 잘 모셔야겠어.’ \*

‘오늘의 목적지, 에스테야 마을이다. 모자도 찾았고 못생긴 나의 그림자도 만났다.....’

내 길인데 내가 없던 길, 하지만 여왕의 다리(쁘엔페 라 레이나: 다리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된 곳)에서 에스테야 가는 길에 내가 있었다. 내 그림자가 그걸 알려주었다. ‘ (『45일의 기적』 109쪽)

분명 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는 없고, 운룡 가면의 나, 위선의 나, 타인에 비친 거짓 나가 내 인생을 채우고 있었음을...

‘너 어디 있느냐?’ 태초의 하느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나 없는 하루를 살던 나에게 109페이지 이 글귀를 통하여 들려옵니다.

다시 지금 이 순간의 나로 돌아와 오늘을 허락하신 내 사랑 주님,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Hosanna my God (독자 후기에서)

## 수도회 소식

### 모세 수사님 귀국

최호정 모세 수사님께서 외국에서의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11월 11일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모세 수사님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속회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사님이 행복하게 수도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돈희 보니파시오 신부님의 사제 수품 은경축

9월 23일 남가주 가르멜 수도원에서 이돈희 보니파시오 신부님의 사제 수품 은경축을 맞아 조출한 축하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은총 안에 행복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강의 주제	강사
11월 12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태 13,23-32)	강유수 마리요한 신부
12월 10일	십자가의 성 요한과 성모님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접수 방법: 문자 사전접수 010-4149-1853 (신청양식: 영성특강/이름/세례명/연락처/본당)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 본 특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b>11월은 쉽니다</b>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 성시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날짜	11월 27일
주제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지도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첫토요 신심 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 재속회

### 종신서약

\*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16일
- . 회원: 김혜정 삼위일체의 에메렌시아나  
나은정 하느님사랑의 글로리아  
이윤주 겸손의 아녜스

\* 인천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4일
- . 회원: 서종분 성모성심의 안나  
장명숙 아기예수의 안나  
정애련 예수의 노엘라  
정현주 예수성심의 요안나

\* 인천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7일
- . 회원: 차재숙로사리오의 모니카

\* 전주 순교자의 모후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0일
- . 회원: 황명순 예수성심의 엘리사벳  
신명교 순교자들의 그레고리오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다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6일
- . 회원: 김광희 복되신 동정M. 바울라  
윤연주 성모성심의 마리아

\* 수원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13일
- . 회원: 김영희 예수성심의 세레나  
정미현 예수의 라파엘라

### 은경축

\* 서울 성 요셉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12일
- . 회원: 이기순 성체의 스텔라  
박금만 예수성심의 마르타  
류화자 요셉의 쟈마

\* 인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12일
- . 회원: 홍영순 성모성심의 소화데레사

\* 서울 성 시몬스톡 공동체



- . 날짜: 2021년 9월 19일
- . 회원: 강옥순 성삼의 마리세실리아  
민조웅 성삼의 알퐁소 안셀모

\* 울산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1년 10월 9일
- . 회원: 강옥수 십자가예수의 수산나

###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최희녀 임마누엘의 발바라
- . 선종일: 2021년 10월 1일(향년 95세)
- .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이돈희 보니파시오 신부님 은경축



\* 상주 가르멜 수녀원 종신서원



인천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종신서약



인천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종신서약



수원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다 공동체 종신서약



전주 순교자의 모후 공동체 종신서약



서울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종신서약



수원 성 요셉 공동체 종신서약



오, 나의 하느님,  
 흠숭하옵 삼위일체시여,  
 제 영혼이 마치 이미 영원 속에 있듯이,  
 제가 당신 안에 확고하고 평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잊게 하소서.  
 그 무엇도 제 평화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의 기도 중에서 -